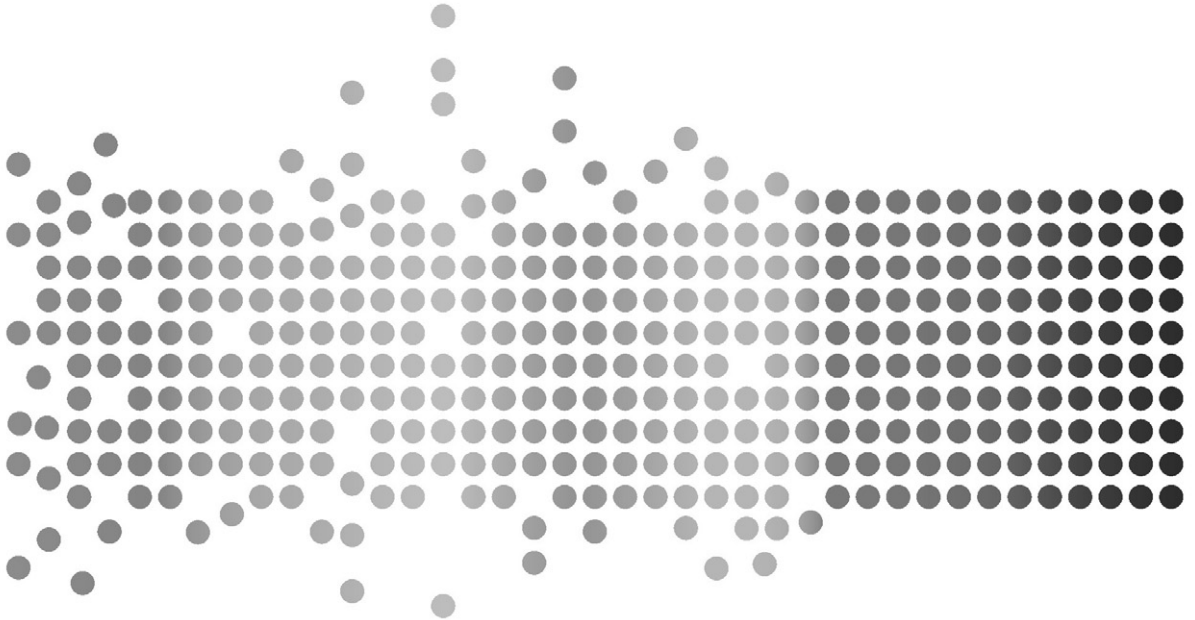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Changing Inheritance Behaviors Du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nd Policy Recommendations

김현식 · 황선재 · 김윤희



연구보고서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2년
저자 김현식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87-7 93510

머리말

최근 연구자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발전,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과 같은 특정 분과학문을 넘어서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와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산상속행위가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분석들은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연구가 요청된 바 본 보고서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전개하고 가설을 세운 후 이론적 가설들을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사회과학의 논리를 구체화하였다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이다. 이론적인 면을 강조했다라는 점,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는 점 또한 참신한 발상이다. 사회이론이 적절한 경험적 자료와 만나지 못하면 공허한 상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식 하에 본 보고서는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검증함으로써 현실에 근거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통계적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강건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시도한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라 하더라도, 특히 관찰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라면 분

석과 해석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 장에서 그러한 한계들을 명확히 지적하고 독자들에게 해석상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류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연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기에 독자 분들의 아낌없는 비판을 바란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현식 부연구위원의 책임 아래 동국대학교 인구와 사회연구소 황선재 박사 그리고 본원의 김윤희 연구원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최슬기 박사, 원내에 있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과 이윤경 부연구위원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연구의 틀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윤석 교수는 한국인구학회의 자리를 빌려 초고를 읽고 아낌없는 비판을 해 주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저자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구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순간에 알게 모르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나타나는 모든 오류는 연구진의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정책적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17
제1절 저출산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17
제2절 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20
제3장 자료 및 측정	25
제1절 자료	25
제2절 측정	26
제3절 표본선정	33
제4장 2012년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	37
제1절 전화조사개요	37
제2절 전화조사결과	39
제5장 유산상속여부 분석	89
제1절 이론적 배경	89
제2절 통계적 방법론	94
제3절 분석결과	96

제6장 향후 유산상속시기 분석	109
제1절 이론적 배경	109
제2절 통계적 방법론	112
제3절 분석결과	112
제7장 유산상속형태 분석	125
제1절 이론적 배경	125
제2절 통계적 방법론	127
제3절 분석 결과	130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요약	145
제2절 연구의 한계	146
제3절 정책적 함의	148
참고문헌	153
부록	157

표 목차

〈표 3-1〉 노인실태조사 개요25

〈표 3-2〉 종속변수 측정: 유산상속 여부27

〈표 3-3〉 종속변수 측정: 유산상속 시기28

〈표 3-4〉 종속변수 측정: 유산상속 형태29

〈표 4-1〉 표본의 기술통계40

〈표 4-2〉 Q1. 유산상속여부43

〈표 4-3〉 Q2. 유산상속시기47

〈표 4-4〉 Q3. 유산상속형태50

〈표 4-5〉 Q4. 유산상속 관련 갈등54

〈표 4-6-1〉 Q5-1. 아들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59

〈표 4-6-2〉 Q5-2. 아들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61

〈표 4-7-1〉 Q6-1. 딸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67

〈표 4-7-2〉 Q6-2. 딸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69

〈표 4-8-1〉 Q7-1. 건강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75

〈표 4-8-2〉 Q7-2. 건강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77

〈표 4-9-1〉 Q8-1. 기대수명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83

〈표 4-9-2〉 Q8-2. 기대수명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85

〈표 5-1〉 기술통계: 유산상속 여부97

〈표 5-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101

〈표 5-3〉 아들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103

〈표 5-4〉 동거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104

〈표 6-1〉 기술통계: 유산상속시기	113
〈표 6-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 유산상속시기	117
〈표 6-3〉 아들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시기	119
〈표 6-4〉 동거 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시기	120
〈표 7-1〉 기술통계: 유산상속형태	132
〈표 7-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135
〈표 7-3〉 아들 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139
〈표 7-4〉 동거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141



Abstract

Changing Inheritance Behaviors Du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2001, South Korea has been experiencing lowest low fertilities defined by failure to reach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of 1.3 and unfortunately, there is no sign that TFR will go up to the level of 1.3, let alone the replacement TFR of 2.1, in foreseeable future. In addition, the pace of population aging is gathering so breathtaking a force that it is nearly impossible to find a match in the world. In this report, we endeavor to unearth a fraction of changing inheritance behaviors under these enormous demographic currents.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shift and inheritance, we attempt to distinguish two levels of influences stemming from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ocial level and individual level. We capture the social and individual levels of low fertility using TFR and number of children respectively. Life expectancy and age serve as indicators for the social and individual level of population aging respectively.

Drawing social theories from numerous fields of social sciences, we formulate persuasive hypotheses predicting impa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on inheritance behaviors, with the two-level structures carefully considered. We restrict our attention on timings and beneficiaries of inheritance, in large part because of data availability. To examine our hypotheses, we utilize cross-sectional data on social life and health behaviors of older persons with observation points in 1994, 1998, 2004, 2008 and 2011 in addition to our own survey conducted for this report in 2012. Data are fitted to multinomial logit model and ordinal logit model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sponse variable.

Our main findings include that multiple children, especially number of sons, tend to speed up the process of inheritance and that period TFR appears to enhance likelihood of the eldest son being the beneficiary of inheritance. In addition, response on a counterfactual question on inheritance behaviors reveals that bad health seems to foment intention to bequeath wealth to a child who helps the benefactor.

We are restrained from asserting that our findings reflect causal flow from the explanatory variables to the response variables particularly because we use a cross-sectional dataset. For instance, the reverse causality is plausible that children would live together with their parents because they received some part of inheritance. After commenting on limitations of this report, we delineate our future research agenda.

Keywords: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inheritance, eldest son preference, equal inheritance, counterfactual question.

요약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배경 하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유산상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유산상속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 개인의 경제적 환경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세대간 부의 이전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아래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행위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저출산고령화를 원인변수로 보았을 경우 이들의 영향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 다양한 유산상속행위 중에서 유산상속여부 및 향후 유산상속시기, 그리고 선호하는 유산상속형태를 결과변수로 설정한다. 3)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과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론을 검증해 본다. 4) 이러한 결과에 바탕하여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제시한다.

II. 주요연구결과

우선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참조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유산상속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간합계출산율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후보장체계 내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유산상속 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자녀수의 하락으로 대변되는 개인수준의 저출산은 부모-자녀 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 유산상속동기를 강화시킬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는 향후 살아가야할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의 증가로 파악하는 개인적 수준의 고령화는 건강의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다.

2012년 실시한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들이나 딸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른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대수명이 증가할 경우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유산상속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교환을 선호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 젊을수록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사회 환원을 선호하는 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횡단 자료를 합쳐 분석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상속 여부와 관련하여 자녀수가 한 명일 경우에 비해 두 명이상일 경우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확률이 높았으며 아들 수가 한 명이상일 경우와 동거 아들이 한 명이상일 경우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확률이 높았다. 이에 더하여 다른 모든 저출산 고령화 관련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향후 유산상속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고, 아들 수가 많고, 동거

이들 수가 많을수록 유산상속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확률이 낮았다. 그 외의 저출산·고령화 변수는 모형마다 추정치가 달라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장자중심상속과 균등분배의 경향으로 구분한 유산상속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장자에게 유산상속을 할 확률이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낮아지지만, 자녀수가 3명 혹은 4명 이상인 노인들은 자녀가 1명인 노인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한 명의 딸과 동거하는 경우 균등상속 확률이 높았으나 동거하는 딸이 두 명이상일 경우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여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산상속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바 유산상속이 미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산상속 문제를 매개로 한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재산권을 가진 노인이 죽은 다음 배우자와 자녀사이,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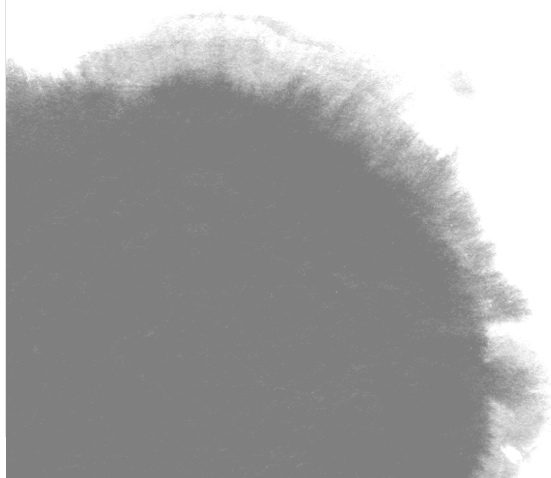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들이 또한 소수의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은 이러한 불평등확산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증대하여 유산상속동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저출산 · 고령화, 유산상속시기, 장자상속, 균등상속, 반사실적 질문.



1장

서론





제1장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혹은 이미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는 분석적으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개별적 사회과정, 즉 저출산과 고령화의 산물이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1970년 4.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0년에 1.6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0년에는 1.2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참조). 인구의 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청년층의 상대적 감소라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평균수명의 증가라는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1970년에 약 62세였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90년에 71.3로 2010년에는 80.3세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시대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의 유산상속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삼식 외 2011; 이윤경 외 2010).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삼식 외 2011). 저출산현상과 관련된 유산상속의 변화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면 저출산에 따른 소자녀나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적음에 따라 자녀 당 상속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상속의 양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적은 자녀수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친밀성 증대는 사회적 부모다는 상속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삼식 외(2011)는 유산상속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의 갈등과 자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저출산이 어떤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무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친인척에의 상속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에의 기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상속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의 길이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시기 변화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시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만큼의 시기를 노후자산으로 보낼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의 양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퇴시기가 길어지면 그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상속가능 자산의 양이 증대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론적인 예측이 어렵다. 최소한의 상속가능한 부를 축적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자녀나 친족, 혹은 사회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상속할 재산이 있는 노인에게 논의를 한정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산상속의 동기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시기에 유산상속 선호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예를 들어 김혜경, 2008), 저출산고령화의 사회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산상속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탐구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예를 들어, 문형표 외, 2006). 이는 아마도 저출산과 고령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의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측정을 시도한 자료가 없다는 자료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문제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횡단적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본 후 그 차이를 기술하는 것인데 이는 이윤경 외 (2010)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윤경과 동료들은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의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상속유형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전부 물려준 노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상속을 하더라도 일부만 물려주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

건을 보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의 동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이윤경 외의 연구가 취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즉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와 본 보고서를 위해 수집한 2012년 유산상속 국민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유산상속여부, 향후 유산상속시기, 그리고 선호하는 유산상속형태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이전의 연구를 개념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의 두 가지 지점에서 발전시킨다. 우선 개념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이론적 맥락에서 발전시킨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일례로 저출산의 영향을 사회적 수준에서 파악한다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개인의 유산상속행위의 변화라고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는 “만약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고 높았다면 개인들의 유산상속 행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의 영향을 개인적 수준에서 파악한다면 개인의 저출산이 어떻게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의 반사실적 개념을 도입한다면 “만약 어떤 개인이 더 적은 자녀를 낳았다면 이들의 유산상속 행위가 변하였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순서형로짓 모형과 다범주로짓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할 것이다 (5, 6, 7 장의 방법론 부분 참조). 결과변수(outcome variable)가 순서형 범주를 갖는 5장과 7장에서는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할 것이고 다범주변수의 특성을 지닌 6장에서는 다범주로짓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면 어떠한 변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와 개인적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를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저출산의 개인적 효과에 관한 한 변수로서 자녀수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수의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단순히 자녀의 총수만을 설명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단계로 자녀수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즉 처음에는 총 자녀수의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들 수와 딸 수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거하는 아들 수, 동거하는 딸 수, 동거하지 않는 아들 수, 그리고 동거하지 않는 딸 수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다층적인 유산상속의 동기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화의 개인적 수준의 변수로는 노인의 연령을 사용할 것이다. 자료들이 종단적 자료가 아니라 횡단적 자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령화에 따른 유산상속의 동기변화를 인과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필자들은 이러한 방법이 현재 가용한 자료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의 분석 장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중간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자녀수에 초점을 맞추어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 계수들이 연령의 전체효과(overall effects)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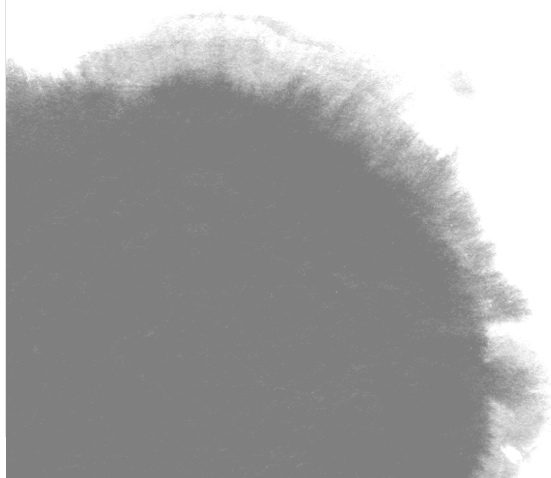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유산상속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발전시킨다. 보다 구체적인 이론은 각 장에서 제시될 것이지만 2장에서 간략한 그림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북돋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검증할 자료를 소개하고 각 자료로부터 어떠한 변수를 활용하였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보고서를 위하여 수집된 2012년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를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유산상속여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6장과 7장은 향후 유산상속시기와 유산상속형태에 대한 분석을 제

시한다. 8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발견을 정리 한 뒤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간략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2장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제2장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여기에서는 본 보고서의 뼈대가 되는 인식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공하는 이론적 틀을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효과와 개인적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역설할 것이다. 각 유산상속 행위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5, 6, 7장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참조하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모든 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이론적 틀을 간략한 수준에서 제시한다.

제1 절 저출산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본 보고서가 탐구하고자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다면 혹은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모아진다는 점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개인수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수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 탐구주제이지만 사회적 수준에서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 유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질문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집합적인

행동이 사회적 행위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는 사회적 수준의 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흔히 말하는 집합행위효과(collective action effect)에 대한 고려가 많은 부분 사 상되어 있으나 이들을 고려하는 세련된 모형을 발전시키는 것은 차후의 과 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관심을 국 한한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 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합계출산율(TFR) 인데 이는 한 시기, 대개는 어느 한 해의 연령 표준화된(age adjusted) 출 산율이다. 그렇다면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속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즉, 합계출산율을 저출산에 대한 지표 로 사용하여 이 변수의 영향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이 개인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이 개인의 유산상속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causal mechanism)는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수준의 저출산이 개인의 유산상 속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후보장에 대한 불확신이라는 매개를 통해 실현된다. 즉, 저출산의 지속 및 심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야 기하고 이는 현재의 노후보장체계가 노동가능인구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설 계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노후보장에 대한 불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가능한 한 유산상속을 미루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저출산이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저출산은 타인이 자녀 혹은 손자녀가 적 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타인의 가족관계가 조밀해 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Becker(1960)의 표현을 빌리면 가족의 자녀에 대한 질적인 투 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다른 가족에서 자녀에 대한 질적 투자의 증

가는 특정한 개인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Becker, 1960). 따라서 사회적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유산상속을 증가시킬 유인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닐 때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여 어떠한 것이 보다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를 찾아내어 향후 정책입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 저출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개인수준에서 저출산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수준의 저출산이 집계출산율로 파악할 수 있다면 개인수준의 저출산은 자녀수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지금 자녀가 두 명인 사람이 자녀가 없었다면 혹은 자녀가 세 명인 사람이 두 명의 자녀밖에 없었다면 이 개인은 어떠한 유산상속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저출산은 어떠한 기제로 유산상속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녀의 수가 적어지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커지게 되고 자녀의 인적자원 향상을 위한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의 심화는 사회회원 대신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을 증가시키고 유산상속시기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적은 수의 자녀 출산은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적은 수의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고 적은 수의 자녀출산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은 개인주의적 저출산은 유산상속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개인주의적 행위를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개인수준의 저출산은 유산상속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 논의의 틀에서 본다면 저출산은 유산상속 동기

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2절 고령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틀

사회적 수준에서 고령화가 개인의 유산상속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킬 때 고령화의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가 그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앞선 절에서 논의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기대수명을 매개로 개인의 유산상속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기대수명의 증가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는 자신이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기대수명의 증가는 향후 자신이 누려야 할 삶이 길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수명의 증가는 불확실한 미래가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인의 상황과 계산에 따라 유산상속 시기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유산상속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자산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산상속 동기가 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자녀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혹은 자녀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유산상속을 빨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녀들에게서 받는 유무형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자녀들에게 빨리 유산을 상속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대수명의 증가가 유산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두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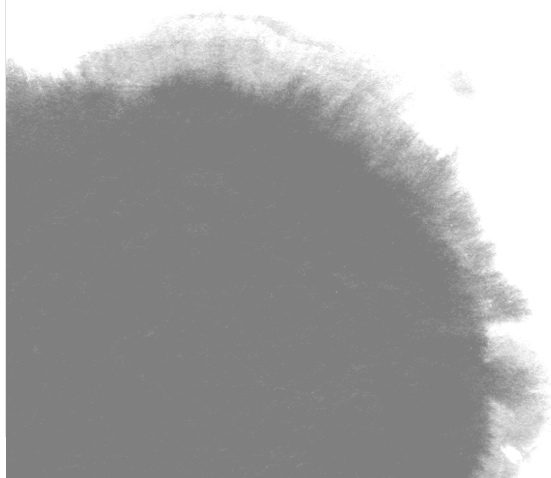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개인 수준에서 고령화가 유산상속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을 매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 또한 두 가지 상반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향후 건강이 좋아지기 보다는 나빠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개연성이 높다. 악화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논의한 양방향의 유산상속 동기가 강화될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개인이라면 유산상속을 미룰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족에 의존하는 개인이라면 유산상속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강의 악화라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론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개인의 유산상속동기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다. 다양한 측면이 있고 상반되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어떠한 측면이 강한 것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각 장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각 유산상속 행위에 미치는 이론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논의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각 장의 이론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3장

자료 및 측정





제3장 자료 및 측정

제1 절 자료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실태조사 및 2012년 유산상속 국민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산상속 동기변화 관련 자료를 구축 분석할 것이다. 노인실태 조사는 1994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1998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최근 2011년에 수행된 횡단자료이다. 2012년 유산상속조사는 본 보고서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자료이다.¹⁾ 다음의 <표 3-1>은 이윤경과 동료들 (2010)의 연구를 약간 바꾼 것으로 노인실태조사의 개요 및 올해 실시된 전화조사의 개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1> 노인실태조사 개요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조사실시	4월 4일-5월 5일	4월 13일-5월 31일	6월 28일-9월 10일
조사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2,058명	2,535명	3,278명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명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 보다 상세한 설명은 4장 참조

〈표 3-1〉 계속

구분	2008년	2011년	2012년
조사실시	8월 11일-2009년 1월 10일	8월 31일-11월 30일	9월 5일-9월11일
조사대상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50세 이상
	15,146명	11,542명	1,000명
수행기관	계명대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명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본 보고서를 위한 전화조사

자료: 이윤경 외 (2010) 참조

<표 3-1>을 보면 연도별로 조사대상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1998년과 2004년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다른 년도에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2012년 전화조사만을 분석하는 4장에서는 전화조사에서 표집된 모든 응답자들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측정

1. 결과변수(outcome variable)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자료를 사용하여 세 가지 결과변수(outcome or response variable)를 선정하였고 이들 변수의 질문 선택지를 다음 쪽부터 <표 3-2>과 <표 3-4>에 연속 제시하였다. 이들 표에서 년도가 표시되지 않은 질문은 당해연도에 측정되지 않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속변수는 2008년에 측정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종속변수는 1994년과 1998년에는 측정되지 않았다.

〈표 3-2〉 종속변수 측정: 유산 상속 여부

1994		1998		2004		2012년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 값
b18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3. 아직 안 물려 줌	i16 1 2 3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3. 아직 안 물려 줌 4. 재산은 있으나 물려줄 생각 없음 5. 물려줄 재산 없음 6. 자녀없음	N24 1 2 3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3.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아직 안 물려 줌 4. 나를 위해 이용(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없음) 5. 사회환원(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없음) 6. 물려줄 재산없음 0. 상속할 가족(자녀 포함) 및 지인이 없음	q01 1 2 3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3. 아직 안 물려 줌 4. 물려줄 재산이 없음 5. 자녀가 없음
<p>종속변수 1: 유산 상속 여부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까?)</p>							

<표 3-3> 종속변수 측정: 유산상속 시기

1994		1998		2004		2012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b21	2 1. 년후 2. 본인(배우자)이 죽은 다음에(유언) 3. 생각해 본 적이 없음 4. 사회단체 회사 5. 자녀결혼 후 6. 일할 능력이 없을 때, 죽을 때 8. 기타	i18 2 1. 년후 2. 본인(배우자)이 죽은 다음에(유언) 3. 생각해 본 적이 없음	N26 1. 본인(배우자)의 사망 후에 6. 생각해 본 적이 없음	q02 2 2.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할 시기에 1. 보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3. 생각해 본적 없다			
		종속변수 2: (아직 안 물려준 경우에 한해) 유산상속시기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					

〈표 3-4〉 종속변수 측정: 유산상속 형태

2004		2008		2011		2012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변수 코딩	원 변수값
N27	4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1 3. 장남에게만 4. 수발·간호를 한 자녀에게 5.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6. 가장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7. 생각해 본 적이 없음 9.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10. (중)손자녀에게 물려주겠다	T8 4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1 3. 장남에게만 5. 효도한 자녀에게 6.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7. 사회에 환원 8.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상속, 환원 9.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10. 상속할 재산이 없음 11. 기타	L5 4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1 3. 장남에게만 5. 효도한 자녀에게 6.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7. 사회에 환원 8.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상속, 환원 9.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10. 기타	q03 4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1 3. 장남에게만 5. 효도한 자녀에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6. 사회에 환원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3. 장남에게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5. 효도한 자녀에게 6. 경제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7. 사회에 환원 8. 가족과 사회에 나누어 상속, 환원 9.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10. 기타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3. 장남에게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5. 효도한 자녀에게 6. 사회에 환원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3. 장남에게만 4.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5. 효도한 자녀에게 6. 사회에 환원

이들 표에서 각 년도 별로 세 개의 열을 제시하였는데 변수 열은 원 자료의 변수 명을, 코딩 열은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범주를, 원 변수값은 원 질문지에서의 변수값을 보여주고 있다. 코딩열에 아무런 숫자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본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유산상속여부에 관한 항목으로 “재산의 일부 혹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4개년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그리고 “3. 아직 안 물려 줌”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4년에는 선택지의 단어가 약간 달라졌지만 “3.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아직 안 물려줌”만을 이전년도의 선택지인 “3. 아직 안 물려 줌”과 같이 취급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유산상속시기를 측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종속변수인 유산상속여부에서 “3. 아직 안 물려 줌”을 선택한 노인들에 한해 두 번째 종속변수인 유산상속시기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1994년 자료에서 이전 변수인 유산상속여부에서 “3. 아직 안 물려 줌”을 선택한 경우에만 두 번째 종속변수인 유산상속시기를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유산상속시기 질문에서 선택지가 연도별로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선택지를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 유산상속시기를 측정하였다. 1) 사망 후에 상속할 예정이다, 2) (어떠한 조건이 불더라도) 사망 전에 상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3)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범주를 기본범주로 설정할 후 다범주로짓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 종속변수로 유산상속형태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설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려 줄 예정입니까(또는 물려주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2008년도에는 질문이 “어르신께서는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로 달라졌지만 동일한 질문으로 간주

하였다. 이 질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를 측정하였다. 0) 장남에게만, 1)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2)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3)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2.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

본 보고서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사회적 수준에서의 저출산 고령화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을 측정하는 두 가지 수준의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저출산의 사회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FR)과 코호트합계출산율(cohort TFR)을 사용하였다. 각년도별 기간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자료(통계청, 2012)를 활용하였으며 코호트합계출산율은 권태환(1997)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개인 수준의 저출산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자녀 수 관련 변수들이다. 이 처치변수들은 세 가지 단계로 측정하였는데 모두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아들 수, 같이 거주하고 있는 딸 수, 같이 거주하지 않는 아들 수, 같이 거주하지 않는 딸 수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처치변수군은 모든 자녀수로 앞서 거론한 네 가지 유형의 자녀를 더한 값이다. 이는 하나의 처치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0) 1명, 1) 2명, 2) 3명, 3) 4명 이상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적 모형을 추정할 때에는 “1명”을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로 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처치변수군은 아들 수와 딸 수로 네 가지 유형의 자녀수를 아들 수와 딸 수끼리 더하여 구하였다. 이 변수군은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변수는 0) 0명, 1) 1명, 2) 2명, 3) 3명이상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계분석 시에는 “0명”을 기본범주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되었다. 마지막 처치변수는 앞서의 네 가지 유형의 자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변수군은 네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변수는 0) 0명, 1) 1명, 2) 2

명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통계모형을 추정할 경우 “0명”을 기본범주로 하는 가변수를 만든 후 사용하였다.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백분율로 측정되었다. 코호트사망확률은 5세별 기간사망확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사망확률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각 연도의 5세별 기대수명을 활용하여 기간기대수명을 구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모든 자료는 통계청으로부터 구하였다(통계청, 2012). 개인수준의 고령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령을 사용하였는데 연령은 0) 65-69, 1) 70-74, 2) 75-79, 3) 80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3.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

본 보고서에서는 혼동변수를 구성하는 데 있어 자녀수를 처치변수로 상정하고 혼동변수를 구성하였다. 자녀수가 유산상속여부, 시기, 그리고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할 때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추정 값에 편의(bias)를 가져온다(Pearl, 2000; Rosenbaum, 2002). 예를 들어, 교육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높은 여성의 경우 교육이 낮은 여성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in, 1995). 이와 더불어 교육이 높은 여성이 유산상속을 늦게 한다고 가정해 보면 교육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수가 유산상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방향으로 (negatively) 편의(bias)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동변수를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본범주로 여성이 1의 값을 갖는 지수변수로 구성하였다. 결혼 상태는 혼인이 기본범주로 되어 있고 기타 (이혼, 별거, 사별)가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가변수이다. 학력은 0) 초등이하, 1) 중등교육, 2) 고등교

육 이상의 범주를 가진 변수이고 “초등학교”를 기본범주로 하는 2개의 가변수로 변환되었다. 취업변수는 0과 1의 값을 가지는 지수변수이고 취업의 경우 1의 값을, 취업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경제 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에 비한” 주관적 경제 상태를 활용하였으며 원래 5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으나 0) 좋다, 1) 보통이다, 2) 나쁘다의 3개 범주로 바꾸어 지수변수를 구성하였다. 2008년의 경우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 상태 인식 질문이 없어서 “어르신은 현재 어르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 변수 또한 원래 5개의 범주를 가진 변수로 측정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3의 범주로 전환하였다(0: 좋다, 1: 보통, 2: 나쁘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는 0) 동, 1) 읍면의 변수 값을 갖고 있다.

제3절 표본선정

마지막으로 사례수를 어떻게 골랐는지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례 수를 설정하는데 있어 원자료로부터 처치변수와 결과변수, 그리고 혼동변수 모두 측정된 사례들만 골랐다. 이렇게 분석에서 하나의 변수라도 결측치가 관찰되면 그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완전사례(complete-case 혹은 listwise deletion)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이 이야기할 수 있는 추정치의 편의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Little & Rubi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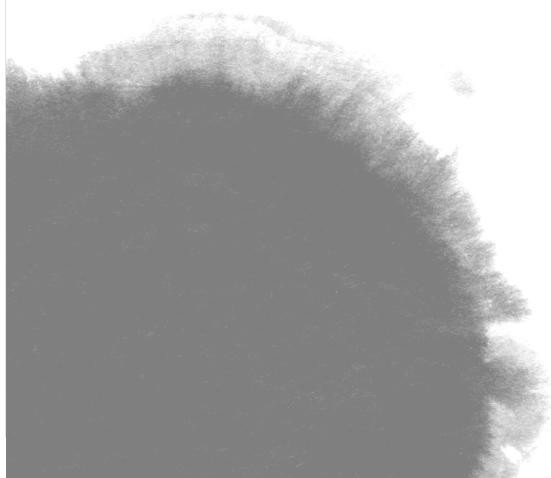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시간의 문제가 있었다. 보다 세련된 분석방법, 예를 들어 다중대체방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후속작업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른 한편, 표집이론의

한 관점인 모형기반접근(model-based approach)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 모집단 전체에 적용된다고 할 때, 표본집단으로 선택될 확률이 설명변수들에 의해 설명된다면 표본집단이 대표성을 가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Little & Rubin, 2002; Lohr, 1999). 하지만 이런 가정은 매우 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본 보고서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완전사례수가 각 년도마다 만들어지면 가중치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즉 원래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 년도의 사례 수가 1000이 되도록 다시 가중치를 주었다. 이는 원자료에 속한 사례 수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다시 주지 않으면 사례 수가 많은 연도의 효과가 과대대표(over-representative)되어 다른 연도의 효과를 잠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가중치의 방식으로 각 년도의 자료가 동등한 가중치를 가짐으로써 연도 사이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장

2012년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





제4장 2012년 유산상속 국민인식조사

노인실태조사만을 이용하여 유산상속 동기변화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주요관심사인 유산상속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측정이 2004년까지 되어 있어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노인실태 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산상속 동기에 한정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2년 저출산 고령화시대 유산상속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향후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이 조사의 개요를 제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제1절 전화조사개요

2012년 전화조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통계 인구표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총 1,000명의 표본을 표집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인구비례층화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비례를 위한 변수로 설문유형, 지역, 성, 연령이 사용되었다. 설문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이는 재산상속방식에 있어 질문의 순서에 따라 응답이 달리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부록의 설문지 참조). 지역의 경우 6개 권역(서울 / 경인권 / 충청권 / 전라권/ 경상권 / 강원제주권)으로 나누었고, 성별을 고려하였으며 연령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인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전화를 걸어, 응답자와 접촉되면 면접원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설문 문항을 응답자에게 불러주며 조사하는 방식이다. 전화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KORA(한국조사협회)에서 제공한 KT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였는바 모든 KORA 가입 조사회사(대부분의 메이저 리서치 회사)에서는 동일한 조사 명부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전화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CATI 시스템에 의해 컴퓨터가 조사 명부 내에서 무작위로 전화 걸기 시도한 후 응답자가 전화를 받으면, 면접원이 SQ문항(성별, 연령 등 지역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정리)을 확인한 후 조사를 부탁한다. 그 다음 조사를 거절하거나 SQ문항 부적격자인 경우 혹은 쿼터의 SQ 문항 오버일 경우 조사를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SQ 문항을 통과한 조사 적격자 및 조사에 응해주겠다는 답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5일(수) ~ 9월 11일(화)에 걸쳐 7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응답 성공율은 1.9%로 나타났으며 (거절 및 불량쿼터: 7396콜 => 응답성공율 = 성공콜수 / [성공콜수 + 거절 및 불량쿼터]) 50대 이상을 접촉하였을 경우의 응답 성공률은 22.6%로 나타났다 (거절 및 쿼터오버: 3425콜 => 응답성공율 = 성공콜수 / [성공콜수 + 거절 및 쿼터오버]).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이다.

설문유형, 지역, 성, 연령의 쿼터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조사된 표본이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모집단과 같은 비율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사후층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가중치를 사용하였을 때 모집단의 모수에 가까운 통계 값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의 분석에 적용한 가중치산정방식은 이와 약간 다른데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가중치는 흔히 소수점이하의 자리까지 수가 나타나는 실수인

데 본 장의 분석에 사용한 Stata의 빈도표 분석 명령어는 소수를 가중치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래의 가중치에 10을 곱하여 나머지 소수는 정수로 반올림하였다. 이렇게 나온 정수를 가중치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례의 수가 커지게 되어 모든 χ^2 분석이 유의미하게 나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사용하여 χ^2 분석을 하였다.

r 개의 행과 c 개의 열이 있는 표에서 특정한 칸에 관측된 수를 O 라고 하고 그 칸의 기대 수를 E 라고 하면 χ^2 의 통계 값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chi^2 = \sum_i^r \sum_j^c \frac{(O_{ij} - E_{ij})^2}{E_{ij}} \quad (4-1)$$

위의 식에서 분자는 지승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100을 곱하여준 것이 되는 반면 분모는 10만을 곱하여준 것이기 때문에 χ^2 값이 10배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분모에 10을 곱한 후 χ^2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단순빈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산된 빈도에 10을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보여주었다.

제2절 전화조사결과

1. 표본의 기술통계

<표 4-1>은 2012년 전화조사에서 나타난 표본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 표본의 기술통계

	범주	무 가중치 (N=1,000)		가중치 적용 (N=990.1)		
		빈도	%	빈도	%	
설문 유형	A	500	50.0	494.8	50.0	
	B	500	50.0	495.3	50.0	
총 자녀수	0	28	2.8	29.1	2.9	
	1	127	12.7	123.2	12.4	
	2	389	38.9	392.7	39.7	
	3+	456	45.6	445.1	45.0	
아들 수	0	142	14.2	142.2	14.4	
	1	444	44.4	442.5	44.7	
	2	326	32.6	319.2	32.2	
	3+	88	8.8	86.2	8.7	
딸 수	0	297	29.7	295.8	29.9	
	1	374	37.4	371.6	37.5	
	2	195	19.5	191.4	19.3	
	3+	134	13.4	131.3	13.3	
동거 아들 수	0	673	67.3	656.4	66.3	
	1	249	24.9	252.4	25.5	
	2+	78	7.8	81.3	8.2	
동거 딸 수	0	784	78.4	767.7	77.5	
	1	153	15.3	156.7	15.8	
	2+	63	6.3	65.7	6.6	
비동거 아들 수	0	401	40.1	411.2	41.5	
	1	311	31.1	300.5	30.4	
	2+	288	28.8	278.4	28.1	
비동거 딸 수	0	474	47.4	479.7	48.4	
	1	277	27.7	269.9	27.3	
	2+	249	24.9	240.5	24.3	
연령	50대	461	46.1	479.8	48.5	
	60대	285	28.5	268.0	27.1	
	70대+	254	25.4	242.3	24.5	
	성별	남성	432	43.2	462.7	46.7
		여성	568	56.8	527.4	53.3
	결혼 상태	혼인	835	83.5	831.8	84.0
		기타	165	16.5	158.3	16.0
	교육	초등	301	30.1	288.5	29.1
		중등	188	18.8	187.1	18.9
		고등+	511	51.1	514.5	52.0
취업	아니오	622	62.2	591.1	59.7	
	예	378	37.8	399.0	40.3	
경제 상태	좋다	139	13.9	136.1	13.7	
	보통	583	58.3	577.7	58.3	
	나쁘다	278	27.8	276.3	27.9	
거주 형태	자가	848	84.8	839.1	84.7	
	기타	152	15.2	151.0	15.3	
건강 상태	좋다	344	34.4	345.8	34.9	
	보통	387	38.7	383.9	38.8	
	나쁘다	269	26.9	260.4	26.3	
지역	서울	199	19.9	194.7	19.7	
	경인	240	24.0	248.2	25.1	
	충청	105	10.5	106.1	10.7	
	전라	111	11.1	116.1	11.7	
	경상	294	29.4	278.8	28.2	
	강원제주	51	5.1	46.2	4.7	
	읍면동	동	785	78.5	777.1	78.5
읍면		215	21.5	213.0	21.5	

설문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재산상속방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질문순서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A 유형에서는 재산상속방식을 묻는 질문에 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②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③ 장남에게만, ④ 딸을 제외하고 아

들에게만 골고루, ⑤ 효도한 자녀에게, ⑥ 사회에 환원의 순서로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나 B 유형에서는 ① 사회에 환원, ② 효도한 자녀에게, ③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④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⑤ 장남에게만, ⑥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A 유형과 B 유형은 건강과 관련한 반사실적 질문과 80세에서 100세까지 수명연장과 관련한 반사실적 질문의 순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A 유형은 위의 순서대로 질문하였으나 B 유형에서는 80세에서 100세까지 수명연장과 관련한 반사실적 질문이 먼저 나왔다. 이러한 질문 순서는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가 수명연장과 건강의 악화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어떤 것이 먼저 오는가에 따라 설문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총 1,000명의 설문응답자들 중 A의 유형에 응답한 사람과 B 유형에 응답한 사람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자녀수의 분포를 보면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2.8%에 지나지 않으며 3명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아 45.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가중치를 준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왔다. 향후 서술할 기술통계에 있어서 가중치를 준수치가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때 나오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서는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때 나오는 수치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만약 두 수치가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면 본문에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들 수의 분포를 보면 한명의 아들이 있는 응답자가 4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주가 2명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응답자는 14.2%, 마지막으로 3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 경우도 8.8%로 나타나고 있다.

2. 유산상속 여부(Q1)

“귀하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2.6%가 전부 물려주었다, 5.2%가 일부만 물려주었다, 가장 많은 55.1%가 아직 안 물려주었다, 34.4%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2.7%가 자녀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4-2> 참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5.1%가 아직 안 물려주었다고 응답한 것은 본 조사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로 나타났는데 앞서 기술통계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2.8%로 나와 두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있어 0.1%(1명)의 오차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설명변수와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유형과 선택지의 선택 확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설문유형을 묻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문유형의 배당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총 자녀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물려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전부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 또한 흥미로운 발견이지만 이외에는 어떤 특정한 응답유형을 찾기 어렵다. 아들 수와의 관계를 보면 아들 수가 증가할수록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한 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딸 수가 증가할수록 전부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표 4-2〉 Q1. 유산상속여부 (무기중치)

변수	범주	전부 물려주었다	일부만 물려주었다	아직 안 물려주었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	자녀가 없다	%	N	χ^2	p
	빈도	26	52	551	344	27		1000		
	%	2.6	5.2	55.1	34.4	2.7	100			
설문 유형	A	2.6	5.2	53.8	36.2	2.2	100	500	2.2	0.704
	B	2.6	5.2	56.4	32.6	3.2	100	500		
총 자녀수	0	0.0	0.0	3.6	0.0	96.4	100	28	993.4	0.000
	1	0.0	6.3	56.7	37.0	0.0	100	127		
	2	1.3	4.9	64.8	29.0	0.0	100	389		
	3+	4.6	5.5	49.6	40.4	0.0	100	456		
아들 수	0	0.7	0.7	52.8	26.8	19.0	100	142	196.4	0.000
	1	1.6	5.9	60.8	31.8	0.0	100	444		
	2	4.9	6.1	51.8	37.1	0.0	100	326		
	3+	2.3	5.7	42.0	50.0	0.0	100	88		
딸 수	0	1.7	6.1	55.2	27.9	9.1	100	297	78.8	0.000
	1	2.1	4.8	57.0	36.1	0.0	100	374		
	2	3.1	3.1	53.8	40.0	0.0	100	195		
	3+	5.2	7.5	51.5	35.8	0.0	100	134		
동거 아들 수	0	3.4	5.1	52.2	35.4	4.0	100	673	25.4	0.001
	1	1.2	6.4	59.0	33.3	0.0	100	249		
	2+	0.0	2.6	67.9	29.5	0.0	100	78		
동거 딸 수	0	3.2	5.9	52.0	35.5	3.4	100	784	23.6	0.003
	1	0.0	2.6	65.4	32.0	0.0	100	153		
	2+	1.6	3.2	68.3	27.0	0.0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0.5	3.2	61.1	28.4	6.7	100	401	80.2	0.000
	1	2.6	6.8	56.6	34.1	0.0	100	311		
	2+	5.6	6.3	45.1	43.1	0.0	100	288		
비동거 딸 수	0	1.3	4.6	59.3	29.1	5.7	100	474	50.7	0.000
	1	2.9	6.1	54.2	36.8	0.0	100	277		
	2+	4.8	5.2	48.2	41.8	0.0	100	249		

〈표 4-2〉 계속

변수	범주	전부 물려주었다	일부만 물려주었다	아직 안 물려주었다	물려줄 재산이 없다	자녀가 없다	%	N	χ^2	p
	빈도	26	52	551	344	27		1000		
	%	2.6	5.2	55.1	34.4	2.7	100			
연령	50대	0.2	3.5	68.5	23.0	4.8	100	461	127.1	0.000
	60대	3.2	7.4	53.3	35.4	0.7	100	285		
	70대+	6.3	5.9	32.7	53.9	1.2	100	254		
성별	남성	2.3	5.6	59.3	29.6	3.2	100	432	8.7	0.070
	여성	2.8	4.9	51.9	38.0	2.3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1.9	5.1	61.9	30.2	0.8	100	835	143.0	0.000
	기타	6.1	5.5	20.6	55.8	12.1	100	165		
교육	초등	4.7	5.3	33.6	54.5	2.0	100	301	103.8	0.000
	중등	1.1	4.8	57.4	34.6	2.1	100	188		
	고등+	2.0	5.3	66.9	22.5	3.3	100	511		
취업	아니오	3.5	5.6	46.6	41.8	2.4	100	622	54.3	0.000
	예	1.1	4.5	69.0	22.2	3.2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7.2	12.2	63.3	15.8	1.4	100	139	145.3	0.000
	보통	1.9	5.0	64.0	27.3	1.9	100	583		
	나쁘다	1.8	2.2	32.4	58.6	5.0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2.6	6.1	59.6	30.3	1.4	100	848	90.7	0.000
	기타	2.6	0.0	30.3	57.2	9.9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2.0	6.7	61.3	27.3	2.6	100	344	69.3	0.000
	보통	1.8	5.2	62.8	27.9	2.3	100	387		
	나쁘다	4.5	3.3	36.1	52.8	3.3	100	269		
지역	서울	2.0	2.0	61.3	32.2	2.5	100	199	19.7	0.476
	경인	2.5	5.8	52.9	35.4	3.3	100	240		
	충청	2.9	10.5	54.3	31.4	1.0	100	105		
	전라	1.8	6.3	53.2	37.8	0.9	100	111		
	경상	2.7	4.4	54.4	35.0	3.4	100	294		
	강원·제 주	5.9	5.9	51.0	33.3	3.9	100	51		
읍면 동	동	2.0	5.4	56.8	33.4	2.4	100	785	8.7	0.069
	읍면	4.7	4.7	48.8	38.1	3.7	100	215		

동거이들 수가 많을수록 전부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아직 안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딸 수가 많으면 아직 안 물려주었다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의 발견과 연관시켜 보면 동거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직 안 물려주었다는 응답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비동거 아들 수와 비동거 딸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이 많을수록 전부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올라가는 반면 아직 안 물려주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동거 아들 수와 딸 수에 관한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의 재산이 없는 경우 많은 자녀들이 독립하여 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부 물려주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아직 안물려주었다는 응답이 떨어지는 한편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물려주었을 확률이 61.9%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교육이 높을수록 아직 안물려줄 확률이 올라갔으나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이 잘 반영된 결과이다.

취업을 한 응답자가 아직 안물려주었을 확률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아직 안물려주었을 확률이 떨어지지만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응답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3. 유산상속 시기(Q2)

“자녀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23.5%가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35.6%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3> 참조). 가장 많이 응답한 범주는 본인이 죽기 전 적당

한 시기에 물려준다고 답한 사람으로 40.9%를 차지하였다.

여러 설명변수와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유형과 선택지의 선택 확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설문유형을 묻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문유형의 배당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들 수와 비동거 아들 수에 따른 유산상속시기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수와의 관계는 아들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응답의 확률이 올라갔다. 또한 비동거 아들 수와의 관계에서도 동거하고 있는 아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물려주겠다는 응답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아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 사후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3〉 Q2. 유산상속시기 (무가중치)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생각해 본 적 없다	%	N	χ^2	p
	빈도	235	409	356		1000		
	%	23.5	40.9	35.6	100			
설문 유형	A	21.2	41.8	37.0	100	500	3.0	0.223
	B	25.8	40.0	34.2	100	500		
총 자녀수	0	17.9	35.7	46.4	100	28	3.4	0.756
	1	28.3	39.4	32.3	100	127		
	2	22.6	41.4	36.0	100	389		
	3+	23.2	41.2	35.5	100	456		
아들 수	0	21.8	40.8	37.3	100	142	14.5	0.024
	1	28.8	38.1	33.1	100	444		
	2	18.1	42.9	39.0	100	326		
	3+	19.3	47.7	33.0	100	88		
딸 수	0	19.9	42.8	37.4	100	297	6.7	0.353
	1	24.6	39.8	35.6	100	374		
	2	22.6	40.0	37.4	100	195		
	3+	29.9	41.0	29.1	100	134		
동거 아들 수	0	24.1	41.9	34.0	100	673	2.8	0.595
	1	22.9	39.4	37.8	100	249		
	2+	20.5	37.2	42.3	100	78		
동거 딸 수	0	23.3	42.0	34.7	100	784	4.1	0.398
	1	21.6	37.3	41.2	100	153		
	2+	30.2	36.5	33.3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22.9	39.2	37.9	100	401	11.0	0.026
	1	28.9	38.6	32.5	100	311		
	2+	18.4	45.8	35.8	100	288		
비동거 딸 수	0	21.1	41.1	37.8	100	474	3.7	0.451
	1	26.4	39.7	33.9	100	277		
	2+	24.9	41.8	33.3	100	249		

〈표 4-3〉 계속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생각해 본 적 없다	%	N	χ^2	p
	빈도	235	409	356		1000		
	%	23.5	40.9	35.6	100			
연령	50대	23.0	38.8	38.2	100	461	5.9	0.205
	60대	24.2	39.3	36.5	100	285		
	70대+	23.6	46.5	29.9	100	254		
성별	남성	24.1	37.3	38.7	100	432	4.6	0.102
	여성	23.1	43.7	33.3	100	568		
결혼상태	혼인	24.8	40.1	35.1	100	835	4.7	0.095
	기타	17.0	44.8	38.2	100	165		
교육	초등	21.6	43.9	34.6	100	301	2.3	0.674
	중등	25.5	37.2	37.2	100	188		
	고등+	23.9	40.5	35.6	100	511		
취업	아니오	23.5	41.5	35.0	100	622	0.3	0.871
	예	23.5	39.9	36.5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20.9	44.6	34.5	100	139	3.2	0.527
	보통	24.5	41.3	34.1	100	583		
	나쁘다	22.7	38.1	39.2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23.5	40.9	35.6	100	848	0.0	0.998
	기타	23.7	40.8	35.5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27.6	39.5	32.8	100	344	6.1	0.192
	보통	21.2	40.3	38.5	100	387		
	나쁘다	21.6	43.5	34.9	100	269		
지역	서울	23.6	39.7	36.7	100	199	9.9	0.449
	경인	25.0	38.8	36.3	100	240		
	충청	25.7	41.9	32.4	100	105		
	전라	19.8	38.7	41.4	100	111		
	경상	24.8	41.2	34.0	100	294		
	강원제주	11.8	56.9	31.4	100	51		
읍면동	동	24.6	40.0	35.4	100	785	2.6	0.274
	읍면	19.5	44.2	36.3	100	215		

4. 유산상속 방식(Q3)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15.0%가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4.8%가 장남에게만, 5.3%가 효도한 자녀에게, 6.9%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응답 하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65.8%로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상속을 하겠다는 응답이었으며,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하겠다는 응답은 2.2%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였다(<표 4-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재산상속방식에 있어 장자중심의 전통적인 유산상속방식을 고수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산상속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와 교차분석한 결과는 설문유형과 선택지의 선택확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설문유형을 묻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즉 설문유형이 무작위적으로 배당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총 자녀수와의 관계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자는 총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수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이들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 수와의 관계에서도, 딸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총 자녀수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4〉 Q3. 유산상속형태 (무기중치)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사회에 환원										
빈도		658	150	48	22	53	69	1000								
	%	65.8	15.0	4.8	2.2	5.3	6.9	100								
설문 유형	A	64.2	16.4	5.4	2.8	5.4	5.8	100	500	5.9	0.321					
	B	67.4	13.6	4.2	1.6	5.2	8.0	100	500							
총 자녀수	0	71.4	3.6	3.6	0.0	14.3	7.1	100	28	74.3	0.000					
	1	58.3	7.9	14.2	1.6	9.4	8.7	100	127							
	2	73.3	11.3	2.1	1.3	3.9	8.2	100	389							
	3+	61.2	20.8	4.6	3.3	4.8	5.3	100	456							
아들 수	0	73.2	4.9	1.4	0.7	12.0	7.7	100	142	49.9	0.000					
	1	65.1	14.6	6.5	1.8	4.3	7.7	100	444							
	2	66.3	16.3	3.7	3.1	4.6	6.1	100	326							
	3+	55.7	28.4	5.7	3.4	2.3	4.5	100	88							
딸 수	0	66.0	13.5	7.7	1.3	4.4	7.1	100	297	33.3	0.004					
	1	68.7	13.9	3.2	1.3	5.6	7.2	100	374							
	2	67.2	15.4	3.1	2.1	4.6	7.7	100	195							
	3+	55.2	20.9	5.2	6.7	7.5	4.5	100	134							
동거 아들 수	0	63.7	15.2	4.9	2.4	6.7	7.1	100	673	18.9	0.041					
	1	69.9	15.7	5.6	1.6	2.8	4.4	100	249							
	2+	70.5	11.5	1.3	2.6	1.3	12.8	100	78							
동거 딸 수	0	64.0	16.1	6.0	2.2	5.2	6.5	100	784	23.5	0.009					
	1	72.5	12.4	0.7	0.7	5.2	8.5	100	153							
	2+	71.4	7.9	0.0	6.3	6.3	7.9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71.1	10.5	3.7	1.5	5.5	7.7	100	401	26.6	0.003					
	1	64.0	14.8	6.1	1.6	5.8	7.7	100	311							
	2+	60.4	21.5	4.9	3.8	4.5	4.9	100	288							
비동거 딸 수	0	67.7	12.9	4.9	1.7	5.1	7.8	100	474	17.6	0.062					
	1	69.7	13.4	4.3	1.4	5.1	6.1	100	277							
	2+	57.8	20.9	5.2	4.0	6.0	6.0	100	249							

〈표 4-4〉 계속

변수	범주	모든		장남에게 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효도한 자녀에게						
	빈도	658	150	48	22	53	69		1000			
	%	65.8	15.0	4.8	2.2	5.3	6.9	100				
연령	50대	72.2	10.0	2.8	0.7	5.0	9.3	100	461	75.5	0.000	
	60대	66.7	16.5	4.9	1.1	4.2	6.7	100	285			
	70대+	53.1	22.4	8.3	6.3	7.1	2.8	100	254			
성별	남성	66.2	13.4	5.8	2.5	3.0	9.0	100	432	15.8	0.008	
	여성	65.5	16.2	4.0	1.9	7.0	5.3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67.8	14.1	4.3	1.8	4.7	7.3	100	835	16.8	0.005	
	기타	55.8	19.4	7.3	4.2	8.5	4.8	100	165			
교육	초등	63.1	17.9	6.6	3.0	6.6	2.7	100	301	31.4	0.000	
	중등	69.1	17.0	3.7	1.6	4.8	3.7	100	188			
	고등+	66.1	12.5	4.1	2.0	4.7	10.6	100	511			
취업	아니오	63.7	16.4	5.9	2.6	6.1	5.3	100	622	16.9	0.005	
	예	69.3	12.7	2.9	1.6	4.0	9.5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62.6	18.0	3.6	1.4	3.6	10.8	100	139	10.6	0.389	
	보통	66.7	14.2	5.7	2.6	5.0	5.8	100	583			
	나쁘다	65.5	15.1	3.6	1.8	6.8	7.2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65.2	15.0	4.7	2.5	5.3	7.3	100	848	3.7	0.596	
	기타	69.1	15.1	5.3	0.7	5.3	4.6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66.9	13.4	3.2	2.0	5.2	9.3	100	344	15.4	0.118	
	보통	66.4	15.8	4.7	1.8	4.4	7.0	100	387			
	나쁘다	63.6	16.0	7.1	3.0	6.7	3.7	100	269			
지역	서울	72.9	11.6	1.5	2.0	5.5	6.5	100	199	28.5	0.287	
	경인	66.3	13.8	3.8	1.7	5.4	9.2	100	240			
	충청	55.2	21.0	5.7	3.8	5.7	8.6	100	105			
	전라	60.4	13.5	7.2	2.7	6.3	9.9	100	111			
	경상	67.0	15.6	6.5	2.0	4.8	4.1	100	294			
	강원 제주	62.7	21.6	5.9	2.0	3.9	3.9	100	51			
읍면 동	동	66.8	14.3	4.2	1.9	5.6	7.3	100	785	7.2	0.204	
	읍면	62.3	17.7	7.0	3.3	4.2	5.6	100	215			

동거 이들 수가 많을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올라가지만, 효도한 자녀에게 몰려주겠다는 응답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동거 딸 수에 따른 재산상속 방식은 딸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딸 수가 늘어날수록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성별보다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결과는 동거 자녀에 따른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비동거 이들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고자하는 응답이 줄어들었으며,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점차 높아졌다. 더불어,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비동거 이들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비동거 딸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고자하고, 사회에 환원하고자하는 비율이 적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을수록 자녀의 성별이 재산상속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반면,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사상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67.8%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55.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상속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까지 마친 부모들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이외에 다른 응답률은 모두 중등, 고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낮았다. 이 경우, 장자중심의 상속은 교육이 낮을수록 높은 반면, 사회로의

경제적 기여에 고려하는 바가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

취업을 한 응답자들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5. 유산상속관련 갈등(Q4)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자녀와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다투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1%에 그쳤으며, 98.9%가 다투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투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이와 같은 결과는 유산상속은 부모의 결정과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재, 표본의 대상이 대부분 50대와 60대를 차지하고 있어, 자녀와 유산상속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를 보면 총 자녀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다투어본 경험이 늘어났다. 특히, 자녀수가 한명인 경우, 다투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녀수는 부모의 유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연령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다투어본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산상속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 취업의 변수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산상속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 확률이 높았고, 미취업 응답자가 취업한 응답자에 비해 갈등을 경험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산상속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표 4-5〉 Q4. 유산상속 관련 갈등 (무가중치)

변수	범주	예,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투어 본적이 없습니다	%	N	χ^2	p
	빈도	11	989		1000		
	%	1.1	98.9	100			
설문 유형	A	1.0	99.0	100	500	0.1	0.762
	B	1.2	98.8	100	500		
총 자녀수	0	3.6	96.4	100	28	8.7	0.033
	1	0.0	100.0	100	127		
	2	0.3	99.7	100	389		
	3+	2.0	98.0	100	456		
아들 수	0	2.1	97.9	100	142	3.6	0.305
	1	0.5	99.5	100	444		
	2	1.5	98.5	100	326		
	3+	1.1	98.9	100	88		
딸 수	0	0.3	99.7	100	297	5.1	0.164
	1	0.8	99.2	100	374		
	2	2.1	97.9	100	195		
	3+	2.2	97.8	100	134		
동거 아들 수	0	1.2	98.8	100	673	2.7	0.259
	1	0.4	99.6	100	249		
	2+	2.6	97.4	100	78		
동거 딸 수	0	1.3	98.7	100	784	2.1	0.357
	1	0.0	100.0	100	153		
	2+	1.6	98.4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1.2	98.8	100	401	0.1	0.932
	1	1.0	99.0	100	311		
	2+	1.0	99.0	100	288		
비동거 딸 수	0	0.4	99.6	100	474	5.9	0.052
	1	1.1	98.9	100	277		
	2+	2.4	97.6	100	249		

〈표 4-5〉 계속

변수	범주	예,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투어 본적이 없습니다	%	N	χ^2	p
	빈도	11	989		1000		
	%	1.1	98.9	100			
연령	50대	0.4	99.6	100	461	8.7	0.013
	60대	0.7	99.3	100	285		
	70대+	2.8	97.2	100	254		
성별	남성	1.2	98.8	100	432	0.0	0.879
	여성	1.1	98.9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1.0	99.0	100	835	0.9	0.333
	기타	1.8	98.2	100	165		
교육	초등	2.3	97.7	100	301	6.5	0.038
	중등	1.1	98.9	100	188		
	고등+	0.4	99.6	100	511		
취업	아니오	1.6	98.4	100	622	3.9	0.048
	예	0.3	99.7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0.7	99.3	100	139	0.2	0.887
	보통	1.2	98.8	100	583		
	나쁘다	1.1	98.9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1.1	98.9	100	848	0.1	0.782
	기타	1.3	98.7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1.2	98.8	100	344	0.0	0.986
	보통	1.0	99.0	100	387		
	나쁘다	1.1	98.9	100	269		
지역	서울	0.0	100.0	100	199	9.2	0.103
	경인	0.8	99.2	100	240		
	충청	1.0	99.0	100	105		
	전라	3.6	96.4	100	111		
	경상	1.0	99.0	100	294		
	강원제주	2.0	98.0	100	51		
읍면 동	동	1.1	98.9	100	785	0.1	0.788
	읍면	0.9	99.1	100	215		

6. 남자자녀 증가 시 반사실적 유산상속(Q5)

가. 유산상속 시기

“귀하에게 남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언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본인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70.7%로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표 4-6-1> 참조).

설명변수들의 결과에서는 비동거 아들 수와 읍면동에 따라 유산상속시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하는 아들이 현재 없거나 두 명 이상일 경우, 남자 자녀가 한 명 더 있다면 재산을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하겠다는 응답이 비동거 아들 수가 현재 한명인 응답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에 따른 차이에서는 읍면에 사는 응답자들이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동에 사는 응답자보다 더 높았다.

나. 유산상속 형태

“귀하에게 남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18.5%가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2.3%가 장남에게만, 2.2%가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5.8%의 응답자는 효도한 자녀에게, 50.6%는 사회에 환원하는게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영역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으로 65.6%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산상속할 경우 상속방식을 질문한 것(Q3)과 유사한 결과이다(<표 4-6-2> 참조).

남자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한 결과는, 남자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하지 않은 상황, 즉 현재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자 자녀가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재산상속방식에 있어 장자중심의 재산 상속 가치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변수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총 자녀수와의 관계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자는 총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 수와의 관계는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증가함에 따라 아들이 한명 더 있다면, 아들 수가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동거 아들 수의 경우에도 아들 수의 변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동거하지 않는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유산상속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선호한 응답자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장자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남자 자녀가 한명 더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딸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재산을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 또한 늘어났는데, 이는 부모자녀간의 친밀성 증대가 자녀의 성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비동거 딸 수와의 관계는 남자 자녀가 한명이 더 있을 경우, 비동거 딸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이 줄어들었으며,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

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올라갔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도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낼 경우, 친밀성 증대 등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유산상속의 방법을 결정지을 수 있으나, 딸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자중심의 재산상속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하고자하는 대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장자중심의 가치관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50대의 경우 이들이 한 명 더 있어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에 73.3%의 응답자가 답한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들의 유산상속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하는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장남에게만 상속,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남성이 더 높았다.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한 응답자와 비슷한 결과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한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환원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은 대상자, 혼인한 상태,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한 상태인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안정망이 탄탄하고, 본인의 삶이 보다 안정적일 때 기부문화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표 4-6-1〉 Q5-1. 아들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 (무가중치)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293	707		1000		
	%	29.3	70.7	100			
설문 유형	A	28.8	71.2	100	500	0.1	0.728
	B	29.8	70.2	100	500		
총 자녀수	0	17.9	82.1	100	28	3.1	0.374
	1	29.1	70.9	100	127		
	2	31.6	68.4	100	389		
	3+	28.1	71.9	100	456		
아들 수	0	26.8	73.2	100	142	6.8	0.078
	1	32.9	67.1	100	444		
	2	27.9	72.1	100	326		
	3+	20.5	79.5	100	88		
딸 수	0	25.3	74.7	100	297	4.0	0.260
	1	32.1	67.9	100	374		
	2	30.8	69.2	100	195		
	3+	28.4	71.6	100	134		
동거 아들 수	0	30.6	69.4	100	673	2.8	0.241
	1	28.1	71.9	100	249		
	2+	21.8	78.2	100	78		
동거 딸 수	0	28.3	71.7	100	784	3.7	0.158
	1	30.1	69.9	100	153		
	2+	39.7	60.3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26.7	73.3	100	401	7.2	0.027
	1	35.0	65.0	100	311		
	2+	26.7	73.3	100	288		
비동거 딸 수	0	28.1	71.9	100	474	3.5	0.175
	1	33.6	66.4	100	277		
	2+	26.9	73.1	100	249		

〈표 4-6-1〉 계속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293	707		1000		
	%	29.3	70.7	100			
연령	50대	28.2	71.8	100	461	0.8	0.676
	60대	31.2	68.8	100	285		
	70대+	29.1	70.9	100	254		
성별	남성	30.8	69.2	100	432	0.8	0.368
	여성	28.2	71.8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30.4	69.6	100	835	3.1	0.080
	기타	23.6	76.4	100	165		
교육	초등	27.9	72.1	100	301	0.7	0.713
	중등	31.4	68.6	100	188		
	고등+	29.4	70.6	100	511		
취업	아니오	28.1	71.9	100	622	1.1	0.299
	예	31.2	68.8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28.8	71.2	100	139	0.2	0.924
	보통	29.0	71.0	100	583		
	나쁘다	30.2	69.8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29.6	70.4	100	848	0.2	0.624
	기타	27.6	72.4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32.0	68.0	100	344	1.8	0.404
	보통	27.9	72.1	100	387		
	나쁘다	27.9	72.1	100	269		
지역	서울	33.2	66.8	100	199	5.7	0.338
	경인	30.0	70.0	100	240		
	충청	32.4	67.6	100	105		
	전라	24.3	75.7	100	111		
	경상	28.6	71.4	100	294		
	강원제주	19.6	80.4	100	51		
읍면동	동	31.0	69.0	100	785	4.8	0.028
	읍면	23.3	76.7	100	215		

〈표 4-6-2〉 Q5-2. 아들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 (무기중치)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효도한 사회에 환원	%	N	χ^2	p
		자녀에게 골고루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아들에게만					
빈도		656	185	23	22	58	56	1000			
	%	65.6	18.5	2.3	2.2	5.8	5.6	100			
설문 유형	A	66.8	18.6	3.0	2.4	4.6	4.6	100	500	6.8	0.236
	B	64.4	18.4	1.6	2.0	7.0	6.6	100	500		
총 자녀수	0	71.4	7.1	0.0	0.0	10.7	10.7	100	28	45.7	0.000
	1	68.5	12.6	3.9	0.8	8.7	5.5	100	127		
	2	71.7	14.7	1.0	1.3	3.9	7.5	100	389		
	3+	59.2	24.1	3.1	3.5	6.4	3.7	100	456		
아들 수	0	76.1	7.0	0.0	0.0	12.0	4.9	100	142	49.4	0.000
	1	66.9	17.1	2.7	2.0	4.3	7.0	100	444		
	2	62.6	21.8	2.5	3.4	5.2	4.6	100	326		
	3+	53.4	31.8	3.4	2.3	5.7	3.4	100	88		
딸 수	0	67.0	19.2	2.4	1.0	4.0	6.4	100	297	23.8	0.069
	1	68.2	16.8	1.9	1.6	5.3	6.1	100	374		
	2	62.1	19.0	1.5	3.1	8.2	6.2	100	195		
	3+	60.4	20.9	4.5	5.2	7.5	1.5	100	134		
동거 아들 수	0	64.8	18.1	2.7	2.4	6.2	5.8	100	673	7.4	0.692
	1	66.3	20.9	1.6	2.0	5.2	4.0	100	249		
	2+	70.5	14.1	1.3	1.3	3.8	9.0	100	78		
동거 딸 수	0	63.5	20.3	2.8	2.6	5.1	5.7	100	784	23.4	0.009
	1	73.9	14.4	0.0	0.0	7.2	4.6	100	153		
	2+	71.4	6.3	1.6	3.2	11.1	6.3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70.6	14.0	1.0	1.0	7.7	5.7	100	401	42.3	0.000
	1	67.8	16.4	3.2	2.3	3.2	7.1	100	311		
	2+	56.3	27.1	3.1	3.8	5.9	3.8	100	288		
비동거 딸 수	0	68.8	16.5	1.7	1.1	5.7	6.3	100	474	20.5	0.025
	1	67.1	17.3	2.5	2.2	5.1	5.8	100	277		
	2+	57.8	23.7	3.2	4.4	6.8	4.0	100	249		

〈표 4-6-2〉 계속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아들에게만	아들에게만 골고루						
	빈도	656	185	23	22	58	56		1000			
	%	65.6	18.5	2.3	2.2	5.8	5.6		100			
연령	50대	73.3	12.6	0.7	0.4	6.1	6.9	100	461	80.7	0.000	
	60대	66.0	21.1	1.8	1.8	3.9	5.6	100	285			
	70대+	51.2	26.4	5.9	5.9	7.5	3.1	100	254			
성별	남성	66.2	16.9	3.2	2.5	3.9	7.2	100	432	12.4	0.030	
	여성	65.1	19.7	1.6	1.9	7.2	4.4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67.5	17.7	1.9	1.8	5.3	5.7	100	835	14.2	0.014	
	기타	55.8	22.4	4.2	4.2	8.5	4.8	100	165			
교육	초등	63.1	21.9	4.0	2.3	6.3	2.3	100	301	35.7	0.000	
	중등	66.5	23.9	1.6	1.6	4.3	2.1	100	188			
	고등+	66.7	14.5	1.6	2.3	6.1	8.8	100	511			
취업	아니오	62.4	20.9	3.1	2.7	6.9	4.0	100	622	24.8	0.000	
	예	70.9	14.6	1.1	1.3	4.0	8.2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61.2	18.0	1.4	2.9	6.5	10.1	100	139	8.2	0.606	
	보통	67.2	18.2	2.4	2.1	5.7	4.5	100	583			
	나쁘다	64.4	19.4	2.5	2.2	5.8	5.8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65.0	18.4	2.4	2.1	6.3	5.9	100	848	3.4	0.636	
	기타	69.1	19.1	2.0	2.6	3.3	3.9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65.1	17.2	2.0	1.7	5.5	8.4	100	344	12.7	0.243	
	보통	68.0	18.1	2.1	2.1	5.2	4.7	100	387			
	나쁘다	62.8	20.8	3.0	3.0	7.1	3.3	100	269			
지역	서울	74.4	12.6	1.5	2.0	5.0	4.5	100	199	26.7	0.372	
	경인	64.2	17.9	2.5	1.7	6.3	7.5	100	240			
	충청	60.0	23.8	1.0	1.9	5.7	7.6	100	105			
	전라	58.6	17.1	3.6	3.6	9.9	7.2	100	111			
	경상	66.0	20.4	3.1	2.4	4.4	3.7	100	294			
	강원	62.7	25.5	0.0	2.0	5.9	3.9	100	51			
	제주											
읍면 동	동	65.6	18.1	2.4	1.8	6.1	6.0	100	785	5.0	0.411	
	읍면	65.6	20.0	1.9	3.7	4.7	4.2	100	215			

7. 여자자녀 증가 시 반사실적 유산상속(Q6)

가. 유산상속 시기

“귀하에게 여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언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27.3%가 본인이 죽은 다음에 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72.7%가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에 대부분 응답하였다(<표 4-7-1> 참조).

이러한 수치를 <표 4-3> 및 <표 4-6-1>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즉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생각해 본 적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36.5%였으나 이들이나 딸이 한 명 더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약 29.3%와 27.3%로 7~9% 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른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관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보면, 비동거 아들 수, 읍면동 거주에 따른 결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딸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딸이 원래 없는 부모의 경우, 여자자녀가 한 명이 더 있다면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78.8%로 우세하였다. 이는 딸이 원래 있는 부모가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률보다 더욱 높은 결과이다. 비동거 아들 수와 관련된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비동거 아들 수가 현재 한 명도 없는 부모의 경우,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75.8%로 비동거 아들이 있는 응답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읍면에 살고 있는 응답자는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물려줄 확률이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유산상속 형태

“귀하에게 여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서 65.8%의 응답자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답변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답에 18.2%의 응답자가 이에 답하였다. 나머지 응답 중 2.6%가 장남에게만 상속, 2.7%가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5.4%가 효도한 자녀에게, 5.3%가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표 4-7-2> 참조).

총 자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 자녀수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여자 자녀가 한명 더 늘어난다면,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총 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한명 혹은 두 명인 응답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장자중심의 전통적 유산상속 방식을 고수할 확률이 높으며, 사회기부보다는 상속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수가 현재 없는 응답자의 경우, 장남에게만 상속하거나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이 0%로 나타난 반면,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14.3%로 나타난다. 따라 자녀의 성별보다는 친밀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 수와의 관계에서도 총 자녀수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은 현재 아들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76.8%를 보였고, 아들 수가 늘어날수록 응답률이 점차 감소하여, 아들 수가 세 명 이상인 경우 50.0%로 가장 낮은 확률을 보였다. 또한,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현재 아들이 없는 응답

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아들 수가 줄어들수록 응답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아들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들 수가 증가할수록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은 비동거 아들 수에 따른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거하는 아들이 없는 경우, 70.8%의 응답자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 응답하여, 비동거 아들이 1명인 경우 68.2%, 2명 이상일 경우 56.3%의 응답 비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비동거 아들 수가 줄어들수록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에 대한 답은 비동거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응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비동거 딸 수와 관련된 결과에서도 동거하지 않는 딸의 수가 늘어날수록,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유산상속에서는 여자 자녀가 한명 더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장자중심의 전통적 유산상속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의 확률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산상속에서는 남성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에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한 자녀에

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 관련된 결과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그리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응답자의 경우, 여자 자녀가 한명 더 늘어난다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이 미취업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대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응답은 미취업자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지역에 따른 유상상속의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은 서울이 74.9%로 가장 높았고, 전라도가 57.7%, 충청도가 54.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충청도에서 26.7%로 가장 높은 응답의 확률을 보였고, 장남에게만 혹은 딸을 제외한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라도에서 5.4%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7.6%와 8.1%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유산상속 방식에서 서울이 가장 빨리 탈피하고 있는 반면, 충청도와 전라도가 가장 고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7-1〉 Q6-1. 딸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 (무가중치)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273	727		1000		
	%	27.3	72.7	100			
설문 유형	A	26.4	73.6	100	500	0.4	0.523
	B	28.2	71.8	100	500		
총 자녀수	0	14.3	85.7	100	28	3.7	0.297
	1	23.6	76.4	100	127		
	2	28.5	71.5	100	389		
	3+	28.1	71.9	100	456		
아들 수	0	24.6	75.4	100	142	3.0	0.393
	1	30.0	70.0	100	444		
	2	25.8	74.2	100	326		
	3+	23.9	76.1	100	88		
딸 수	0	21.2	78.8	100	297	8.4	0.038
	1	29.4	70.6	100	374		
	2	31.8	68.2	100	195		
	3+	28.4	71.6	100	134		
동거 아들 수	0	29.0	71.0	100	673	2.9	0.230
	1	24.1	75.9	100	249		
	2+	23.1	76.9	100	78		
동거 딸 수	0	26.4	73.6	100	784	3.1	0.217
	1	28.1	71.9	100	153		
	2+	36.5	63.5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24.2	75.8	100	401	6.4	0.041
	1	32.5	67.5	100	311		
	2+	26.0	74.0	100	288		
비동거 딸 수	0	24.9	75.1	100	474	3.1	0.216
	1	30.7	69.3	100	277		
	2+	28.1	71.9	100	249		

〈표 4-7-1〉 계속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273	727		1000		
	%	27.3	72.7	100			
연령	50대	26.0	74.0	100	461	0.7	0.706
	60대	28.4	71.6	100	285		
	70대+	28.3	71.7	100	254		
성별	남성	29.9	70.1	100	432	2.5	0.113
	여성	25.4	74.6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28.3	71.7	100	835	2.4	0.124
	기타	22.4	77.6	100	165		
교육	초등	24.3	75.7	100	301	2.7	0.264
	중등	30.9	69.1	100	188		
	고등+	27.8	72.2	100	511		
취업	아니오	25.2	74.8	100	622	3.5	0.061
	예	30.7	69.3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28.1	71.9	100	139	3.6	0.169
	보통	25.2	74.8	100	583		
	나쁘다	31.3	68.7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27.5	72.5	100	848	0.1	0.767
	기타	26.3	73.7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32.0	68.0	100	344	5.8	0.056
	보통	24.8	75.2	100	387		
	나쁘다	24.9	75.1	100	269		
지역	서울	32.7	67.3	100	199	8.9	0.112
	경인	30.8	69.2	100	240		
	충청	25.7	74.3	100	105		
	전라	23.4	76.6	100	111		
	경상	24.5	75.5	100	294		
	강원제주	17.6	82.4	100	51		
읍면동	동	28.8	71.2	100	785	4.1	0.043
	읍면	21.9	78.1	100	215		

〈표 4-7-2〉 Q6-2. 딸 수 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 (무기중치)

변수	범주	모든		장남에게 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 게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빈도	658	182	26	27	54	53	1000			
	%	65.8	18.2	2.6	2.7	5.4	5.3	100			
설문 유형	A	67.2	17.8	3.2	2.6	4.6	4.6	100	500	3.9	0.561
	B	64.4	18.6	2.0	2.8	6.2	6.0	100	500		
총 자녀 수	0	67.9	10.7	0.0	0.0	14.3	7.1	100	28	44.4	0.000
	1	69.3	11.8	3.1	2.4	7.1	6.3	100	127		
	2	71.7	14.1	1.0	1.8	4.1	7.2	100	389		
	3+	59.6	23.9	3.9	3.7	5.5	3.3	100	456		
아들 수	0	76.8	6.3	0.0	0.0	12.0	4.9	100	142	57.3	0.000
	1	66.9	17.6	2.5	2.3	4.3	6.5	100	444		
	2	63.8	20.9	3.1	3.7	4.3	4.3	100	326		
	3+	50.0	30.7	5.7	5.7	4.5	3.4	100	88		
딸 수	0	65.7	18.9	2.0	2.7	4.7	6.1	100	297	21.8	0.112
	1	70.6	15.2	1.9	1.6	4.8	5.9	100	374		
	2	61.0	19.5	3.1	4.6	6.2	5.6	100	195		
	3+	59.7	23.1	5.2	3.0	7.5	1.5	100	134		
동거 아들 수	0	64.9	18.0	3.0	2.5	6.2	5.3	100	673	11.8	0.302
	1	66.7	20.5	2.0	3.2	4.0	3.6	100	249		
	2+	70.5	12.8	1.3	2.6	2.6	10.3	100	78		
동거 딸 수	0	64.2	19.6	3.2	2.7	5.1	5.2	100	784	13.2	0.214
	1	72.5	13.7	0.0	2.0	6.5	5.2	100	153		
	2+	69.8	11.1	1.6	4.8	6.3	6.3	100	63		
비동 거 아들 수	0	70.8	13.7	1.2	2.0	6.5	5.7	100	401	41.9	0.000
	1	68.2	16.1	2.6	1.6	4.8	6.8	100	311		
	2+	56.3	26.7	4.5	4.9	4.5	3.1	100	288		
비동 거 딸 수	0	67.9	16.7	1.5	2.5	5.1	6.3	100	474	21.4	0.019
	1	69.7	15.2	2.5	2.5	5.1	5.1	100	277		
	2+	57.4	24.5	4.8	3.2	6.4	3.6	100	249		

〈표 4-7-2〉 계속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빈도	658	182	26	27	54	53		1000			
	%	65.8	18.2	2.6	2.7	5.4	5.3	100				
연령	50대	72.0	12.6	0.9	1.7	5.9	6.9	100	461	68.1	0.000	
	60대	67.7	18.6	1.8	2.1	4.6	5.3	100	285			
	70대+	52.4	28.0	6.7	5.1	5.5	2.4	100	254			
성별	남성	66.0	16.2	3.7	4.2	3.5	6.5	100	432	18.5	0.002	
	여성	65.7	19.7	1.8	1.6	6.9	4.4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67.1	17.7	2.2	2.6	4.9	5.5	100	835	8.4	0.133	
	기타	59.4	20.6	4.8	3.0	7.9	4.2	100	165			
교육	초등	64.1	21.9	5.0	2.3	5.0	1.7	100	301	39.4	0.000	
	중등	64.4	23.4	1.6	2.7	5.3	2.7	100	188			
	고등+	67.3	14.1	1.6	2.9	5.7	8.4	100	511			
취업	아니오	63.7	20.9	3.2	2.6	5.8	3.9	100	622	17.1	0.004	
	예	69.3	13.8	1.6	2.9	4.8	7.7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59.7	20.1	0.7	2.2	7.2	10.1	100	139	12.8	0.232	
	보통	66.2	18.5	2.9	2.9	5.3	4.1	100	583			
	나쁘다	68.0	16.5	2.9	2.5	4.7	5.4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65.0	18.3	2.8	2.8	5.7	5.4	100	848	2.9	0.709	
	기타	70.4	17.8	1.3	2.0	3.9	4.6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64.5	16.9	1.7	3.2	5.8	7.8	100	344	13.0	0.221	
	보통	66.9	18.6	2.6	1.8	5.2	4.9	100	387			
	나쁘다	65.8	19.3	3.7	3.3	5.2	2.6	100	269			
지역	서울	74.9	12.6	1.0	3.5	4.0	4.0	100	199	39.1	0.036	
	경인	67.5	15.4	2.1	1.7	5.4	7.9	100	240			
	충청	54.3	26.7	2.9	1.9	7.6	6.7	100	105			
	전라	57.7	16.2	5.4	5.4	8.1	7.2	100	111			
	경상	66.0	21.4	2.7	2.4	4.4	3.1	100	294			
	강원 제주	62.7	21.6	3.9	2.0	5.9	3.9	100	51			
읍면 동	동	66.6	17.2	2.2	2.4	5.9	5.7	100	785	8.8	0.117	
	읍면	62.8	21.9	4.2	3.7	3.7	3.7	100	215			

8. 건강악화 시 반사실적 유산상속(Q7)

가. 유산상속 시기

“귀하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물려줄 자녀와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물려주시겠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31.8%가 본인이 죽은 다음에 상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8.2%가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물려주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4-8-1> 참조).

설명변수 중에는 아들 수와의 관계와 취업유무가 상속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들 수가 없는 경우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았고, 아들이 있는 경우,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올라갔다. 이는 아들 수가 많을 경우, 부모가 생각한 기준에 따라 자녀별로 적당한 만큼의 유산을 직접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에 따른 결과에서는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이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응답확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을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본인이 죽기 전 계획적인 유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유산상속 형태

“귀하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62.4%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라는 응답에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

는 응답이 18.1%, 10.0%가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5.5%가 사회에 환원, 2.7%가 장남에게만, 그리고, 1.3%가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을 나타냈다(<표 4-8-2> 참조).

이러한 수치를 <표 4-4>와 비교하면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상태에서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5.3%에 그쳤으나 건강이 악화되면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이 10.0%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교환적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유형에 따른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문항에서 설문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응답순서를 다르게 물었을 때 응답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라는 <표 4-8-2>의 형식으로 질문순서를 했을 때에 비교하여 사회에 환원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지로 알려주었을 경우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총 자녀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이 56.1%로 총 자녀수가 세 명 이상일 경우, 자녀수가 없거나(71.4%) 자녀수가 1명(63.0%) 또는 2명(68.9%)일 때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응답 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자녀가 없거나 한명일 경우, 딸을 제외하고 이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없었으며, 자녀수가 세 명이상일 경우 2.2%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은 자녀가 3명이상일 경우 3.5%로 자녀가 없거나(7.1%) 한 명(7.1%) 또는 두 명(7.2%)인 경우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확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가 많을수록 나누어줄 몫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가치관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유산을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아들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여, 아들 수는 전통적인 유산상속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동거 아들 수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전체 아들 수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동거하는 아들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물려줄 것이라고 응답한 확률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도 비동거 아들 수가 없는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그리고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동거 아들 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짐에 따라 비동거 아들 수가 많을수록 남자 자녀를 중심으로 유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되,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는 답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그리고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의 확률이 높아졌다.

성별에 따라서도 유산상속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효도한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에서 남성보다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사회에 환원한다는 응답에 더 높은 확률을 보였다.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하였을 때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가치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 상

태에 있는 응답자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답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는 답에 혼인상태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혼인상태가 아닌 응답자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 그리고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그리고 효도한 자녀에게 상속 할 것이라는 응답은 반대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을 한 응답자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거나 사회에 환원,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는 응답이 취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8-1〉 Q7-1. 건강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 (무가중치)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318	682		1000		
	%	31.8	68.2	100			
설문 유형	A	30.8	69.2	100	500	0.5	0.497
	B	32.8	67.2	100	500		
총 자녀수	0	17.9	82.1	100	28	2.6	0.451
	1	33.1	66.9	100	127		
	2	32.1	67.9	100	389		
	3+	32.0	68.0	100	456		
아들 수	0	24.6	75.4	100	142	17.1	0.001
	1	38.5	61.5	100	444		
	2	27.6	72.4	100	326		
	3+	25.0	75.0	100	88		
딸 수	0	28.3	71.7	100	297	2.4	0.489
	1	33.4	66.6	100	374		
	2	33.3	66.7	100	195		
	3+	32.8	67.2	100	134		
동거 아들 수	0	30.8	69.2	100	673	5.4	0.068
	1	36.9	63.1	100	249		
	2+	24.4	75.6	100	78		
동거 딸 수	0	30.2	69.8	100	784	4.7	0.095
	1	35.9	64.1	100	153		
	2+	41.3	58.7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31.9	68.1	100	401	4.7	0.095
	1	35.7	64.3	100	311		
	2+	27.4	72.6	100	288		
비동거 딸 수	0	31.4	68.6	100	474	1.3	0.516
	1	34.3	65.7	100	277		
	2+	29.7	70.3	100	249		

〈표 4-8-1〉 계속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318	682		1000		
	%	31.8	68.2	100			
연령	50대	33.4	66.6	100	461	1.2	0.550
	60대	31.2	68.8	100	285		
	70대+	29.5	70.5	100	254		
성별	남성	34.7	65.3	100	432	3.0	0.084
	여성	29.6	70.4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33.2	66.8	100	835	4.4	0.036
	기타	24.8	75.2	100	165		
교육	초등	29.9	70.1	100	301	1.3	0.511
	중등	30.3	69.7	100	188		
	고등+	33.5	66.5	100	511		
취업	아니오	29.3	70.7	100	622	4.9	0.027
	예	36.0	64.0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33.8	66.2	100	139	0.6	0.740
	보통	30.9	69.1	100	583		
	나쁘다	32.7	67.3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32.5	67.5	100	848	1.4	0.231
	기타	27.6	72.4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33.7	66.3	100	344	1.2	0.553
	보통	30.0	70.0	100	387		
	나쁘다	32.0	68.0	100	269		
지역	서울	38.7	61.3	100	199	6.0	0.306
	경인	31.3	68.8	100	240		
	충청	30.5	69.5	100	105		
	전라	27.9	72.1	100	111		
	경상	30.3	69.7	100	294		
	강원	27.5	72.5	100	51		
	제주	27.5	72.5	100	51		
읍면동	동	32.9	67.1	100	785	1.9	0.167
	읍면	27.9	72.1	100	215		

〈표 4-8-2〉 Q7-2. 건강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 (무기중치)

변수	범주	모든		모든 장남에게 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환원	사회에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빈도	624	181	27	13	100	55		1000			
	%	62.4	18.1	2.7	1.3	10.0	5.5	100				
설문 유형	A	63.2	19.4	3.2	2.0	7.8	4.4	100	500	12.8	0.026	
	B	61.6	16.8	2.2	0.6	12.2	6.6	100	500			
총 자녀수	0	71.4	7.1	0.0	0.0	14.3	7.1	100	28	42.3	0.000	
	1	63.0	13.4	4.7	0.0	11.8	7.1	100	127			
	2	68.9	13.9	1.3	0.8	8.0	7.2	100	389			
	3+	56.1	23.7	3.5	2.2	11.0	3.5	100	456			
아들 수	0	73.9	5.6	0.0	0.0	14.8	5.6	100	142	42.0	0.000	
	1	62.8	18.0	3.2	0.9	8.3	6.8	100	444			
	2	59.5	20.9	2.8	2.5	10.1	4.3	100	326			
	3+	52.3	28.4	4.5	1.1	10.2	3.4	100	88			
딸 수	0	64.3	17.8	2.7	0.7	8.1	6.4	100	297	17.0	0.320	
	1	64.4	16.8	2.1	0.8	10.2	5.6	100	374			
	2	57.9	18.5	2.6	2.1	12.3	6.7	100	195			
	3+	59.0	21.6	4.5	3.0	10.4	1.5	100	134			
동거 아들 수	0	61.1	18.4	3.1	1.2	10.5	5.6	100	673	12.2	0.272	
	1	63.9	20.1	2.0	1.6	8.8	3.6	100	249			
	2+	69.2	9.0	1.3	1.3	9.0	10.3	100	78			
동거 딸 수	0	60.6	19.6	3.3	1.3	9.7	5.5	100	784	16.5	0.085	
	1	70.6	13.7	0.0	0.7	10.5	4.6	100	153			
	2+	65.1	9.5	1.6	3.2	12.7	7.9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68.3	13.0	1.2	1.0	10.5	6.0	100	401	42.5	0.000	
	1	63.0	16.4	3.5	0.3	9.6	7.1	100	311			
	2+	53.5	27.1	3.8	2.8	9.7	3.1	100	288			
비동거 딸 수	0	66.0	15.8	1.9	0.8	8.9	6.5	100	474	15.0	0.131	
	1	62.1	17.7	2.9	1.4	10.8	5.1	100	277			
	2+	55.8	22.9	4.0	2.0	11.2	4.0	100	249			

〈표 4-8-2〉 계속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 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 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 게	사회에 환원	%	N	χ^2	p
	빈도	624	181	27	13	100	55		1000		
	%	62.4	18.1	2.7	1.3	10.0	5.5	100			
연령	50대	69.8	11.9	0.4	0.2	10.4	7.2	100	461	84.7	0.000
	60대	63.9	19.3	2.1	1.4	8.4	4.9	100	285		
	70대+	47.2	28.0	7.5	3.1	11.0	3.1	100	254		
성별	남성	66.0	15.7	3.7	1.9	6.3	6.5	100	432	20.5	0.001
	여성	59.7	19.9	1.9	0.9	12.9	4.8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64.3	17.1	2.2	1.1	9.7	5.6	100	835	13.7	0.018
	기타	52.7	23.0	5.5	2.4	11.5	4.8	100	165		
교육	초등	57.5	22.9	5.3	1.0	11.3	2.0	100	301	43.9	0.000
	중등	62.2	22.3	1.6	1.1	10.1	2.7	100	188		
	고등+	65.4	13.7	1.6	1.6	9.2	8.6	100	511		
취업	아니오	60.0	20.9	3.5	1.1	10.8	3.7	100	622	24.0	0.000
	예	66.4	13.5	1.3	1.6	8.7	8.5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53.2	19.4	2.9	2.2	12.2	10.1	100	139	12.6	0.249
	보통	63.3	18.2	2.6	1.4	10.3	4.3	100	583		
	나쁘다	65.1	17.3	2.9	0.7	8.3	5.8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61.8	18.3	2.8	1.4	10.3	5.4	100	848	1.8	0.879
	기타	65.8	17.1	2.0	0.7	8.6	5.9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59.6	18.3	2.0	1.5	11.0	7.6	100	344	13.6	0.193
	보통	66.7	16.3	2.3	0.8	8.8	5.2	100	387		
	나쁘다	59.9	20.4	4.1	1.9	10.4	3.3	100	269		
지역	서울	72.4	12.6	2.0	1.0	7.5	4.5	100	199	31.6	0.168
	경인	65.4	15.0	2.1	0.8	9.6	7.1	100	240		
	충청	49.5	23.8	3.8	1.9	13.3	7.6	100	105		
	전라	55.0	17.1	3.6	2.7	14.4	7.2	100	111		
	경상	60.5	21.8	3.1	1.4	9.5	3.7	100	294		
	강원·제 주	62.7	23.5	2.0	0.0	7.8	3.9	100	51		
읍면 등	동	62.4	17.3	2.5	1.0	10.7	6.0	100	785	7.1	0.213
	읍면	62.3	20.9	3.3	2.3	7.4	3.7	100	215		

9. 수명증가 시 반사실적 유산상속(Q8)

가. 유산상속 시기

“2012년 현재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물려줄 자녀와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물려주시겠습니까”를 묻는 질문에 본인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69.2%로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표 4-9-1> 참조).

여러 설명변수와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유형과 선택지의 선택 확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설문유형을 묻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문유형의 배당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외에 설명변수들의 결과에서는 총 자녀수와 아들 수에 따른 유산상속시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총 자녀수에서는 자녀수의 증감에 따른 유산상속의 일정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들 수에 따른 결과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고, 아들이 있는 응답자들은 아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물려주고자하는 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산상속 형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18.4%가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8.7%가 효도한 자녀에게, 5.8%가 사회에 환원, 2.7%가 장남에게만,

1.4%가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63.0%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겠다고 답했다 (<표 4-9-2> 참조). 현재 상황에서의 유산상속 형태를 묻는 질문(<표 4-4>)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한 감소나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총 자녀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가 세 명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더불어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자녀수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아들 수에 따른 결과는 아들 수가 늘어날수록 장자중심의 전통적 유산상속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들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였으며,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는 응답과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딸 수가 증가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딸 수가 한 명일 경우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66.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딸 수는 증가할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주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동거 딸 수는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어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동거 딸 수가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는 응답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자녀와의 친밀성이 유산상속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비동거 딸 수와 관련된 결과에서 동거하지 않는 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한다는 응답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비동거 아들 수의 결과는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가치관이 유지됨에 따라 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동거 아들 수는 늘어날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모

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연령에 따른 유산상속은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것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 그리고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응답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더욱 오랫동안 살아가게 될 세대는 전통적 유산상속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성별과 관계 없이 균등하게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 낮을수록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높아진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응답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안정망이 탄탄한 서구 사회처럼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넓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66.2%의 응답자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유산상속을 할 것이라는 응답으로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20.4%, 남성이 15.7%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유산상속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혼인상태인 응답자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답에 64.9%의 응답률을 보였고,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53.3%가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의 특징을 갖는 응답에서 모두 혼인상태의 응답자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이 높을수록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응답하고나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교육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취업을 한 응답자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높고,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는 응답이 미취업 응답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장자중심의 전통적 사상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에 따른 결과에서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상속한다는 응답에 서울이 7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라도가 56.8%, 충청도가 50.5%로 가장 낮은 응답 확률을 나타냈다. 반대로,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는 응답에서는 서울이 11.1%로 가장 낮고, 충청이 25.7%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으며, 장남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거나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나누어줄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 전라도가 각각 4.5%와 2.7%의 응답으로 지역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방식에서 가장 많이 탈피하였으며, 충청도와 전라도가 아직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9-1〉 Q8-1. 기대수명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시기 (무기중치)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308	692		1000		
	%	30.8	69.2	100			
설문 유형	A	30.4	69.6	100	500	0.1	0.784
	B	31.2	68.8	100	500		
총 자녀수	0	10.7	89.3	100	28	8.0	0.047
	1	28.3	71.7	100	127		
	2	34.2	65.8	100	389		
	3+	29.8	70.2	100	456		
아들 수	0	19.7	80.3	100	142	14.8	0.002
	1	35.8	64.2	100	444		
	2	30.4	69.6	100	326		
	3+	25.0	75.0	100	88		
딸 수	0	28.3	71.7	100	297	3.0	0.387
	1	34.0	66.0	100	374		
	2	28.7	71.3	100	195		
	3+	30.6	69.4	100	134		
동거 아들 수	0	30.3	69.7	100	673	2.1	0.358
	1	33.7	66.3	100	249		
	2+	25.6	74.4	100	78		
동거 딸 수	0	30.4	69.6	100	784	0.6	0.742
	1	31.4	68.6	100	153		
	2+	34.9	65.1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27.7	72.3	100	401	6.0	0.049
	1	36.0	64.0	100	311		
	2+	29.5	70.5	100	288		
비동거 딸 수	0	30.8	69.2	100	474	1.2	0.561
	1	32.9	67.1	100	277		
	2+	28.5	71.5	100	249		

〈표 4-9-1〉 계속

변수	범주	본인이 죽은 다음에(유언)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	N	χ^2	p
	빈도	308	692		1000		
	%	30.8	69.2	100			
연령	50대	30.6	69.4	100	461	4.0	0.134
	60대	34.7	65.3	100	285		
	70대+	26.8	73.2	100	254		
성별	남성	31.0	69.0	100	432	0.0	0.896
	여성	30.6	69.4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31.9	68.1	100	835	2.6	0.104
	기타	25.5	74.5	100	165		
교육	초등	29.9	70.1	100	301	0.6	0.759
	중등	33.0	67.0	100	188		
	고등+	30.5	69.5	100	511		
취업	아니오	29.4	70.6	100	622	1.5	0.226
	예	33.1	66.9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28.8	71.2	100	139	1.4	0.508
	보통	30.0	70.0	100	583		
	나쁘다	33.5	66.5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31.5	68.5	100	848	1.2	0.267
	기타	27.0	73.0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32.3	67.7	100	344	1.0	0.621
	보통	31.0	69.0	100	387		
	나쁘다	28.6	71.4	100	269		
지역	서울	38.2	61.8	100	199	7.5	0.184
	경인	28.3	71.7	100	240		
	충청	32.4	67.6	100	105		
	전라	27.0	73.0	100	111		
	경상	29.6	70.4	100	294		
	강원 제주	25.5	74.5	100	51		
읍면동	동	32.2	67.8	100	785	3.5	0.061
	읍면	25.6	74.4	100	215		

〈표 4-9-2〉 Q8-2. 기대수명관련 반사실적 유산상속형태 (무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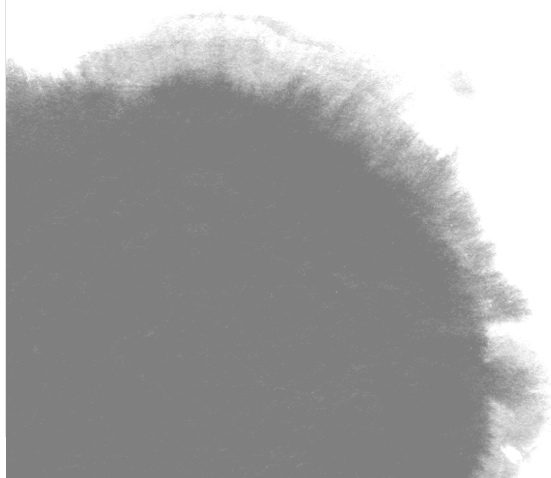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장남에게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환원	%	N	χ^2	p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효도한 자녀에게					
	빈도	630	184	27	14	87	58		1000		
	%	63.0	18.4	2.7	1.4	8.7	5.8	100			
설문 유형	A	63.4	19.2	3.2	2.0	7.6	4.6	100	500	7.7	0.171
	B	62.6	17.6	2.2	0.8	9.8	7.0	100	500		
총 자녀수	0	60.7	7.1	0.0	0.0	21.4	10.7	100	28	53.6	0.000
	1	65.4	14.2	3.9	0.8	9.4	6.3	100	127		
	2	69.2	13.9	1.0	0.5	6.9	8.5	100	389		
	3+	57.2	24.1	3.9	2.4	9.2	3.1	100	456		
아들 수	0	72.5	6.3	0.0	0.0	16.2	4.9	100	142	53.3	0.000
	1	64.4	18.0	2.9	1.1	5.9	7.7	100	444		
	2	60.1	20.9	3.1	2.5	8.9	4.6	100	326		
	3+	51.1	30.7	4.5	1.1	10.2	2.3	100	88		
딸 수	0	64.0	18.2	2.0	0.7	8.1	7.1	100	297	25.3	0.046
	1	66.0	16.3	2.1	0.8	8.3	6.4	100	374		
	2	62.1	16.9	3.1	2.6	9.7	5.6	100	195		
	3+	53.7	26.9	5.2	3.0	9.7	1.5	100	134		
동거 아들 수	0	61.8	18.3	3.1	1.2	10.0	5.6	100	673	15.0	0.132
	1	64.3	20.9	2.0	2.0	6.4	4.4	100	249		
	2+	69.2	11.5	1.3	1.3	5.1	11.5	100	78		
동거 딸 수	0	61.2	20.3	3.3	1.4	8.0	5.7	100	784	19.6	0.033
	1	68.6	13.7	0.0	0.7	11.1	5.9	100	153		
	2+	71.4	6.3	1.6	3.2	11.1	6.3	100	63		
비동거 아들 수	0	67.6	13.7	1.2	1.0	10.0	6.5	100	401	48.0	0.000
	1	66.9	16.1	3.2	1.0	5.1	7.7	100	311		
	2+	52.4	27.4	4.2	2.4	10.8	2.8	100	288		
비동거 딸 수	0	65.8	15.8	1.5	0.8	8.9	7.2	100	474	26.7	0.003
	1	65.7	16.2	2.9	1.4	8.3	5.4	100	277		
	2+	54.6	25.7	4.8	2.4	8.8	3.6	100	249		

〈표 4-9-2〉 계속

변수	범주	모든 자녀에게		장남에 계만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끌고루	효도한 자녀에 계	사회에 환원	%	N	χ^2	p
		끌고루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빈도	630	184	27	14	87	58	1000			
	%	63.0	18.4	2.7	1.4	8.7	5.8	100			
연령	50대	70.9	11.1	0.4	0.2	9.5	7.8	100	461	92.2	0.000
	60대	62.1	21.4	2.1	1.4	7.7	5.3	100	285		
	70대+	49.6	28.3	7.5	3.5	8.3	2.8	100	254		
성별	남성	66.2	15.7	3.9	1.9	5.8	6.5	100	432	17.6	0.003
	여성	60.6	20.4	1.8	1.1	10.9	5.3	100	568		
결혼 상태	혼인	64.9	17.5	2.2	1.1	8.4	6.0	100	835	15.4	0.009
	기타	53.3	23.0	5.5	3.0	10.3	4.8	100	165		
교육	초등	57.5	24.6	5.3	1.3	9.6	1.7	100	301	51.6	0.000
	중등	62.2	22.9	1.6	1.1	9.0	3.2	100	188		
	고등+	66.5	13.1	1.6	1.6	8.0	9.2	100	511		
취업	아니오	60.6	20.9	3.5	1.3	9.3	4.3	100	622	18.3	0.003
	예	66.9	14.3	1.3	1.6	7.7	8.2	100	378		
경제 상태	좋다	54.0	19.4	2.9	2.9	9.4	11.5	100	139	14.9	0.138
	보통	64.8	18.2	2.6	1.4	8.2	4.8	100	583		
	나쁘다	63.7	18.3	2.9	0.7	9.4	5.0	100	278		
거주 형태	자가	62.0	18.6	2.9	1.5	8.8	6.0	100	848	3.6	0.616
	기타	68.4	17.1	1.3	0.7	7.9	4.6	100	152		
건강 상태	좋다	61.9	17.4	2.3	1.5	8.7	8.1	100	344	17.2	0.070
	보통	65.9	16.8	2.6	0.5	8.3	5.9	100	387		
	나쁘다	60.2	21.9	3.3	2.6	9.3	2.6	100	269		
지역	서울	73.4	11.1	1.5	1.0	8.0	5.0	100	199	38.8	0.038
	경인	62.5	16.7	1.7	0.8	9.6	8.8	100	240		
	충청	50.5	25.7	3.8	1.0	11.4	7.6	100	105		
	전라	56.8	17.1	4.5	2.7	11.7	7.2	100	111		
	경상	62.6	22.4	3.4	1.7	6.8	3.1	100	294		
	강원 제주	66.7	19.6	2.0	2.0	5.9	3.9	100	51		
읍면 동	동	63.4	17.7	2.4	1.0	9.2	6.2	100	785	8.1	0.152
	읍면	61.4	20.9	3.7	2.8	7.0	4.2	100	215		

5장

유산상속여부 분석





제5장 유산상속여부 분석

본 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유산상속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관점을 검증한다. 유산상속여부는 전부 물려줌, 일부만 물려줌, 아직 안 물려줌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범주형 변수는 한 변수 값과 다음 변수 값 사이에 일종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형(ordinal) 변수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분석모형으로 순서형 로짓(ordinal logit)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제1 절 이론적 배경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유산상속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미 2장에서 이론적 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 특히 기간출산율과 코호트출산율의 효과를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기간합계출산율로 나타나는 어떤 기간의 저출산은 상대적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을 증대시키고 생산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이삼식·정경희 외, 2010).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현재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생산인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시대에 사회보장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1). 따라서 유산상속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년층이라

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개인주의적 견해를 가진 개인이라면, 즉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이 적은 사람이라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재산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유산을 상속했기보다는 향후 하려고 하는 유인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족의존적, 특히 자녀에게 의존적인 개인이라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산을 미리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할 만큼의 재산을 가진 개인이라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거나 가족의존적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산상속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1-1. 기간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유산상속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각 코호트의 출산율이 유산상속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코호트 저출산은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타인의 가족에게 자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감의 수준의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Becker, 1960).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자녀 혹은 손자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소수의 자녀와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산상속을 늦추기보다는 이른 시점에서 유산상속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두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1-2. 코호트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 수준의 저출산은 개인당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적은 자녀의 수는 유산상속시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자녀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수가 적으면 많은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수의 자녀와 같이 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자녀와 접촉밀도가 커질 것이고 이는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은 자녀에 유산상속을 빨리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유산상속을 빨리하여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유산상속을 미루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녀수가 많을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녀수가 적은 것에 비해 많아지면 자녀사이에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기에 유산을 상속할 유인이 적어질 것이다. 유산상속에 대한 기대를 매개로 하여 자녀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 시간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녀를 적게 낳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선별이론(selection theory)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자산을 사용할 유인이 커진다. 즉 유산상속을 이른 시기에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 유산상속을 늦출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녀의 수가 유산상속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향적인 예측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5-2. 자녀수의 증대는 유산상속을 미루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수의 감소는 유산상속을 앞당기는 영향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가 개인의 유산상속시기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우선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는 저출산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기대수명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더 많은 여생이 남았다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이는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우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면 유산상속을 늦출 것이고 가족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유산상속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다른 한편 사회적 수준의 고령화는 수명연장과 함께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린다. 이는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할 시간의 증대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유산상속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유산상속시기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유산상속시기가 늦추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3. 기대수명의 연장은 유산상속시기를 늦출 것이다.

노년층이 점차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기대수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지인들이 하나둘 사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현실의 기대수명은 인구학에서 흔히 측정하는 기대수명과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론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5세별 코호트의 지난 10년 동안의 사망확률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론적인 면에서 코호트의 사망확률이 유산상속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주위의 지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우선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후손에 남기고 싶어 할 동기가 커질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덧없어 보이고 소유에 대한 집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망확률의 증가는 유산상속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추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5-4. 높은 코호트사망확률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개인적 수준의 고령화는 연령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령의 증가는 유산상속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연령의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동기는 떨어지고 개인소비를 위한 저축동기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연령의 증가로 유산상속을 빨리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 연령이 늘어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유산을 정리할 유인을 높일 것이다. 또한 건강의 악화는 자녀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연령의 증가는 유산상속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

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기대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5.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연령의 증가로 인한 유산상속동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제2절 통계적 방법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유산상속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유산상속여부에 대한 측정은 1) 전부 물려 줌, 2) 일부만 물려 줌, 그리고 3) 아직 안 물려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수의 측정은 순서형 범주변수(ordinal categorical variable)로 볼 수 있다. 즉 일부만 물려준 경우를 전부 물려준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아직까지 물려주지 않았을 경우를 일부만 물려준 경우와 비교하는 것과 물려주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순서형 범주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인 순서형 로짓(ordinal logit)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몇몇 통계적 기호들을 도입하도록 하자. 종속 변수를 Y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경우 Y 는 3개의 순서형 범주를 갖는 변수이다 ($j = 1, 2, 3$). 먼저 종속변수가 j 범주를 가질 확률을 π_j 라고 표현하자. 즉 $P(Y=j|\mathbf{t}, \mathbf{x}) = \pi_j(\mathbf{t}, \mathbf{x})$. $\sum_j \pi_j = 1$. 여기에서 \mathbf{t} 는 처치변수를 뜻하고 \mathbf{x} 는 혼동변수를 뜻한다. 식의 왼 편에서 $|$ 의 의미는 “주어진(given)”이라는 뜻이고 이는 확률이 조건부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데 처치변수가 \mathbf{t} 값을 가지고 혼동변수가 \mathbf{x}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지수변수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때문에 열벡터로 표현하였다. 이때, j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gresti 2002).

$$P(Y \leq j | \mathbf{t}, \mathbf{x}) = \pi_1(\mathbf{t}, \mathbf{x}) + \cdots + \pi_j(\mathbf{t}, \mathbf{x}) \quad <5-1>$$

이때 누적 로짓(cumulative logit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text{logit}[P(Y \leq j | \mathbf{t}, \mathbf{x})] &= \log[P(Y \leq j | \mathbf{t}, \mathbf{x}) / \{1 - P(Y \leq j | \mathbf{t}, \mathbf{x})\}] \\ &= \log[\{\pi_1(\mathbf{t}, \mathbf{x}) + \cdots + \pi_j(\mathbf{t}, \mathbf{x})\} / \{\pi_{j+1}(\mathbf{t}, \mathbf{x}) + \cdots + \pi_J(\mathbf{t}, \mathbf{x})\}] \end{aligned} \quad <5-2>$$

Y 가 1과 2의 값을 갖는 로짓 모형에서 <식 5-2>는 일반 로짓 모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비례확률(proportional odds) 모형은 누적 로짓의 설명변수들에 대한 선형적 변환(linear transformation), 혹은 로그 누적 확률비(log cumulative odds ratio)의 비례적(proportional) 변환인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logit}[P(Y \leq j | \mathbf{x}, \mathbf{t})] = \alpha_j + \boldsymbol{\beta} \mathbf{t} + \boldsymbol{\lambda}' \mathbf{x} \quad <5-3>$$

<식 5-3>에서 α 는 각 누적 로짓에서의 절편(intercept)을 뜻하고 모형을 추정하면 $J-1$ 개의 절편이 나오게 된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j 의 값이 커질수록 α 의 값이 정(定)의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j 이하의 범주가 많아지면서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식 5-3>에서 $\boldsymbol{\beta}$ 는 처치변수와 연관된 계수값을 의미하며 우리의 관심은 이 계수들의 방향과 크기에 놓여 있다. 흔히 벡터는 열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boldsymbol{\beta}$ 의 위첨자인 '는 전치(transpose)를 뜻한다. $\boldsymbol{\beta}$ 의 값이 양수이면 j 이하의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반대로 음수이면 보다 높은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식 5-3>의 가장 큰 특징은 누적 로짓의 범주들이 변화되어도, 즉 j 의 값이 변화되어도 설명변수의 영향은 $\boldsymbol{\beta}$ 혹은 $\boldsymbol{\lambda}$ 로 일정하다는 점이다. 또한 로그 누적 확률비가 \mathbf{t} 혹은 \mathbf{x} 의 값에 비례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로그 누적

확률비가 t 혹은 x 의 값의 변화에 따라 β 혹은 λ 의 양만큼 비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Agresti [2002] 책의 276쪽 참조).

제3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5-1>은 유산상속여부관련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1994, 1998, 2004 그리고 2012년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순서대로 854, 1306, 2033, 그리고 225명의 노인이 분석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들의 기술통계를 보면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1994년에 약 28.5%의 노인이 전부 물려주었으며 11.1%의 노인이 일부만을 물려주었고 60.4%의 노인이 아직 물려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가중치를 주어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가중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포는 비단 1994년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년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연도별로 유산상속여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부 물려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한편 아직 물려주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자녀수를 보면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인들이 2004년도까지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2년 자료에서는 40%에 지나지 않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들 수나 딸 수 관련 변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딸 수의 경우 가중치를 주면 연도가 지날수록 3명 이상의 딸을 둔 노인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거 아들 수, 동거 딸 수, 동거하지 않는 아들 수, 동거하지 않는 딸 수를 살펴보면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현상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 아들 수 관련 변수를 보면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1994년도에 같이 살지 않는 비율이 56.8%였다가 2012년이 되면 79.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연도구분과 상관없이 90%를 넘어 딸과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동거하지 않는 아들과 딸의 수를 보면 둘 이상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 기술통계: 유산상속여부

		1994 (N=854)			1998 (N=1306)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상속 여부	전부	243	28.5	28.0	333	25.5	24.7
	일부	95	11.1	9.5	128	9.8	10.2
	아직	516	60.4	62.6	845	64.7	65.1
자녀 수	1	38	4.4	4.7	35	2.7	2.9
	2	58	6.8	7.7	59	4.5	5.3
	3	91	10.7	11.9	136	10.4	12.8
	4+	667	78.1	75.7	1076	82.4	79.0
아들 수	0	25	2.9	3.0	29	2.2	2.3
	1	182	21.3	23.3	255	19.5	21.4
	2	239	28.0	29.5	407	31.2	32.1
	3+	408	47.8	44.2	615	47.1	44.2
딸 수	0	88	10.3	11.2	90	6.9	7.5
	1	160	18.7	19.9	252	19.3	22.0
	2	214	25.1	23.2	336	25.7	26.1
	3+	392	45.9	45.7	628	48.1	44.5
동거 아들 수	0	501	58.7	56.8	851	65.2	63.1
	1	333	39.0	40.7	433	33.2	34.9
	2+	20	2.3	2.5	22	1.7	1.9
동거 딸 수	0	810	94.8	93.5	1214	93.0	91.5
	1	42	4.9	6.2	86	6.6	7.7
	2+	2	0.2	0.2	6	0.5	0.8
비동거 아들 수	0	106	12.4	13.9	135	10.3	11.9
	1	201	23.5	25.9	306	23.4	24.4
	2+	547	64.1	60.3	865	66.2	63.7
비동거 딸 수	0	93	10.9	12.0	107	8.2	9.0
	1	165	19.3	20.4	253	19.4	22.3
	2+	596	69.8	67.6	946	72.4	68.7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5-1〉 계속

		2004 (N=2033)			2012 (N=225)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상속 여부	전부	368	18.1	18.3	21	9.3	9.4
	일부	294	14.5	13.7	28	12.4	12.4
	아직	1371	67.4	68.0	176	78.2	78.2
자녀 수	1	63	3.1	3.3	26	11.6	11.4
	2	150	7.4	8.1	43	19.1	19.1
	3	319	15.7	16.8	65	28.9	28.8
	4+	1501	73.8	71.8	91	40.4	40.7
아들 수	0	57	2.8	3.1	14	6.2	6.1
	1	437	21.5	22.1	94	41.8	41.8
	2	751	36.9	37.1	86	38.2	38.2
	3+	788	38.8	37.7	31	13.8	13.8
딸 수	0	215	10.6	10.7	54	24.0	23.9
	1	502	24.7	26.4	71	31.6	31.5
	2	533	26.2	26.1	43	19.1	19.1
	3+	783	38.5	36.8	57	25.3	25.5
동거 아들 수	0	1491	73.3	72.3	178	79.1	79.2
	1	504	24.8	25.9	40	17.8	17.8
	2+	38	1.9	1.8	7	3.1	3.1
동거 딸 수	0	1906	93.8	92.8	208	92.4	92.4
	1	121	6.0	6.9	12	5.3	5.3
	2+	6	0.3	0.4	5	2.2	2.3
비동거 아들 수	0	193	9.5	10.4	43	19.1	18.9
	1	507	24.9	25.5	86	38.2	38.2
	2+	1333	65.6	64.1	96	42.7	42.8
비동거 딸 수	0	244	12.0	12.7	66	29.3	29.2
	1	516	25.4	26.6	64	28.4	28.5
	2+	1273	62.6	60.7	95	42.2	42.3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자료에 포함된 노인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80세 이상의 노인이 연도별로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을 제외하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2012년에 비율의 크기가 달라진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당시 여성응답자의 많은 부분이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본 분석의 표본에서 누락되면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표 5-1〉 계속

		1994 (N=854)			1998 (N=1306)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연령	65-69	393	46.0	47.0	551	42.2	42.8
	70-74	262	30.7	30.5	388	29.7	29.6
	75-79	132	15.5	14.8	225	17.2	17.0
	80+	67	7.8	7.7	142	10.9	10.5
성별	남성	394	46.1	48.0	593	45.4	45.2
	여성	460	53.9	52.0	713	54.6	54.8
결혼상태	혼인	516	60.4	61.0	811	62.1	61.0
	기타	338	39.6	39.0	495	37.9	39.0
교육	초등	773	90.5	86.6	1090	83.5	78.8
	중등	37	4.3	5.7	85	6.5	7.8
	고등+	44	5.2	7.7	131	10.0	13.4
취업	아니오	497	58.2	62.7	680	52.1	61.6
	예	357	41.8	37.3	626	47.9	38.4
경제상태	좋다	162	19.0	19.7	200	15.3	15.3
	보통	377	44.1	44.3	609	46.6	47.5
	나쁘다	315	36.9	36.0	497	38.1	37.2
건강상태	좋다	324	37.9	40.2	437	33.5	34.8
	보통	212	24.8	25.0	326	25.0	25.6
	나쁘다	318	37.2	34.8	543	41.6	39.5
거주지	동읍면	228	26.7	46.2	437	33.5	54.3
	읍면	626	73.3	53.8	869	66.5	45.7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5-1〉 계속

		2004 (N=2033)			2012 (N=225)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연령	65-69	906	44.6	45.1	111	49.3	49.0
	70-74	607	29.9	29.4	43	19.1	19.1
	75-79	324	15.9	15.7	46	20.4	20.7
	80+	196	9.6	9.8	25	11.1	11.2
성별	남성	900	44.3	45.1	123	54.7	54.8
	여성	1133	55.7	54.9	102	45.3	45.2
결혼상태	혼인	1346	66.2	67.1	186	82.7	82.7
	기타	687	33.8	32.9	39	17.3	17.3
교육	초등	1525	75.0	71.0	89	39.6	39.4
	중등	194	9.5	10.3	42	18.7	18.7
	고등+	314	15.4	18.6	94	41.8	41.8
취업	아니오	1170	57.6	62.6	166	73.8	73.6
	예	863	42.4	37.4	59	26.2	26.4
경제상태	좋다	257	12.6	13.7	49	21.8	21.6
	보통	914	45.0	44.6	131	58.2	58.7
	나쁘다	862	42.4	41.6	45	20.0	19.7
건강상태	좋다	718	35.3	36.3	84	37.3	37.5
	보통	564	27.7	28.4	87	38.7	38.4
	나쁘다	751	36.9	35.2	54	24.0	24.0
거주지	동	1030	50.7	62.3	168	74.7	75.0
	읍면	1003	49.3	37.7	57	25.3	25.0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2012년을 제외하면 거주지변수만큼 가중치를 주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변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1994년에 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26.7%였으나 가중치를 주면 46.2%로 늘어난다. 이러한 가중치별 차이는 취업의 경우에도 드러나지만 거주지만큼 큰 정도는 아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향후의 모든 모형에서 가중치를 준 상태에서 효과의 크기를 추정할 것이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동에 거주하시는 노인이 최근에 올수록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모형추정결과

<표 5-2>는 세 유형의 자녀수가 유산상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순서형 로짓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

		계수		표준오차
절편	0	-10.054	*	(4.895)
절편	1	-9.296		(4.894)
자녀 수	2	0.833	***	(0.214)
	3	0.428	*	(0.201)
	4+	0.572	**	(0.184)
기간 TFR		-0.359		(0.416)
코호트 TFR		0.242		(0.177)
고령화율		0.029		(0.259)
코호트사망률		9.984		(5.569)
기대수명		0.258		(0.364)
연령	70-74	0.172		(1.732)
	75-79	-0.068		(3.552)
	80+	-0.849		(5.406)
성별	여성	0.437	***	(0.089)
결혼상태	기타	1.176	***	(0.087)
교육	중등	-0.608	***	(0.151)
	고등+	-0.171		(0.117)
취업	예	-0.459	***	(0.089)
경제상태	보통	-0.280	**	(0.101)
	나쁘다	-0.607	***	(0.112)
건강상태	보통	-0.230	*	(0.096)
	나쁘다	0.043		(0.092)
거주지	읍면	0.488	***	(0.084)

P-value: * < 0.05, ** < 0.01, *** < 0.001

앞서 설명한 것처럼, <표 5-2>을 보는데 있어 계수는 로그 누적 확률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수는 이미 물려주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수는 아직 물려주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주요관심사인 자녀수에 따른 효과를 보면 모든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녀가 하나 있는 것에 비해 둘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미 상속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사이의 의논교환을 통해 유산상속에 대한 요구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유산상속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기에 유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들 수와 딸 수로 구분한 변수의 계수들을 보면 아들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현상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딸 수의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5-3>). 이러한 관찰은 앞서 제시한 설명, 즉 유산상속에의 압박과 유산분쟁 방지 차원에서의 이른 유산상속이라는 관점에 힘을 실어준다.

〈표 5-3〉 아들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

		계수		표준오차
절편	0	-11.765	*	(4.911)
절편	1	-11.001	*	(4.911)
아들 수	1	1.259	***	(0.258)
	2	1.338	***	(0.255)
	3+	1.345	***	(0.255)
딸 수	1	-0.187		(0.130)
	2	-0.022		(0.130)
	3+	-0.024		(0.124)
기간 TFR		-0.287		(0.417)
코호트 TFR		0.265		(0.178)
고령화율		0.020		(0.260)
코호트사망률		10.144		(5.582)
기대수명		0.306		(0.365)
연령	70-74	0.313		(1.736)
	75-79	0.201		(3.561)
	80+	-0.471		(5.422)
성별	여성	0.446	***	(0.089)
결혼상태	기타	1.192	***	(0.087)
교육	중등	-0.619	***	(0.151)
	고등+	-0.145		(0.117)
취업	예	-0.462	***	(0.089)
경제상태	보통	-0.254	*	(0.101)
	나쁘다	-0.574	***	(0.112)
건강상태	보통	-0.238	*	(0.096)
	나쁘다	0.033		(0.092)
거주지	읍면	0.469	***	(0.084)

P-value: * < 0.05, ** < 0.01, *** < 0.001

동거여부 및 아들과 딸의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동거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해 하나인 경우 유산상속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4〉). 이러한 발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표 5-4〉를 통해 나타난 계수가 어느 특정방향의 인과관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아들과 동거하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미리 한 것인지, 유산상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아들과 동거를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 5-4〉 동거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여부

		계수	표준오차
절편	0	-9.478	(4.920)
절편	1	-8.699	(4.920)
동거 아들 수	1	0.856	*** (0.087)
	2+	0.578	* (0.262)
동거 딸 수	1	0.249	(0.156)
	2+	-0.175	(0.440)
비동거 아들 수	1	0.318	* (0.129)
	2+	0.530	*** (0.125)
비동거 딸 수	1	-0.072	(0.127)
	2+	0.047	(0.113)
기간 TFR		-0.397	(0.421)
코호트 TFR		0.192	(0.178)
고령화율		0.054	(0.262)
코호트사망률		9.485	(5.632)
기대수명		0.222	(0.366)
연령	70-74	0.128	(1.747)
	75-79	-0.142	(3.585)
	80+	-0.963	(5.458)
성별	여성	0.448	*** (0.089)
결혼상태	기타	1.129	*** (0.088)
교육	중등	-0.555	*** (0.152)
	고등+	-0.053	(0.118)
취업	예	-0.427	*** (0.090)
경제상태	보통	-0.251	* (0.103)
	나쁘다	-0.537	*** (0.114)
건강상태	보통	-0.246	* (0.097)
	나쁘다	0.021	(0.093)
거주지	읍면	0.530	*** (0.086)

P-value: *<0.05, **<0.01, ***<0.001

동거 딸 수와 연관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아들의 경우 한명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둘 이상의 비동거 아들이 있는 응답자는 이미 유산상속을 했을 확률이 높다. 아들 수에 따라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한선흐과(threshold effect)라기 보다는 계단 효과(gradient effect)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동거 딸의 수는 유산상속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나 자녀 구성 혹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저출산 고령화변수, 즉 기간합계출산율, 코호트합계출산율, 고령화율, 코호트사망률, 기대수명, 연령 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라는 관찰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영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독자는 코호트사망률의 계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계수가 사망률이 1의 차이가 날 때의 계수이며 사망률이 1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 큰 계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코호트사망률 자체의 단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변수에 대한 해석은 변수의 효과가 조건부효과(conditional effect)로 표현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야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에 있는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교육이 유산상속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부분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통계적 모형에서는 소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유산상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교육의 효과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소득부분을 제외한 교육의 효과로 가치관 변화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표에서 제시된 교육의 효과는 이러한 특정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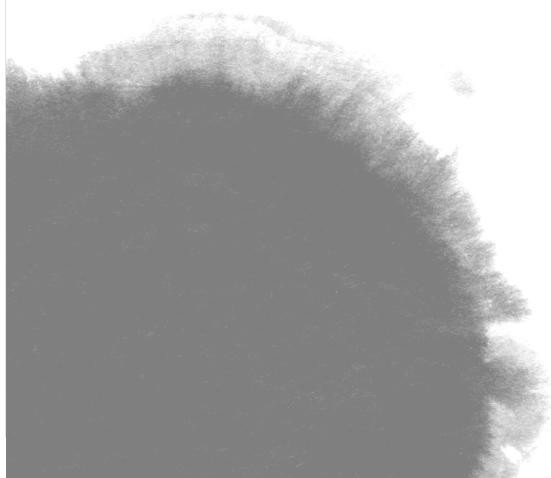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교육의 효과를 말할 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모든 모형에서 제시된 혼동변수가 자녀수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혼동변수라는 점이다. 만약 교육의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의 모형들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유념하면서 몇 가지 변수의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거주지별로 읍면에 사는 노인이 동에 사는 노인에 비해 이미 상속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태가 혼인이 아닌 노인들이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취업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상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상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수들의 유형은 세 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6장

향후 유산상속시기 분석





제6장 향후 유산상속시기 분석

앞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향후 유산상속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다. 본 장과 이전 장은 유산상속시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동일한 연구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전 장은 유산상속여부를 통해서 유산상속시기를 살펴보지만 본 장은 향후 유산상속시기에 대한 의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전 장에서 발전시킨 유산상속시기와 관련된 이론들이 본 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장의 이론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5장의 이론부분을 세밀히 읽은 독자라면 본 장의 이론적인 부분을 건너뛰어도 좋을 것이다. 본 장에서의 결과변수는 향후 유산상속시기와 관련하여 1) 죽은 다음에 상속, 2) 죽기 전에 상속, 3) 생각 없음이라는 범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세 변수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 하에 통계적 분석으로 다범주로지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이 2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3절에서는 결과를 제시하고 이 결과를 해석한다.

제1 절 이론적 배경

한 기간의 저출산은 고령인구의 비율을 증대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시스템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만약 개인이 개

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유산상속시기를 늦출 것이고 가족의존적인 상황이라며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상황이 보다 지배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1-1. 기간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유산상속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기간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죽기 전에 상속하겠다는 사람에 비해 죽은 다음에 유산을 상속하려는 사람을 늘릴 것이다. 생각해 본적 없음과 비교하여 죽은 다음에 상속하겠다는 비율에 관해서는 뚜렷한 예측이 어렵다.

코호트출산율의 하락은 사회전반적인 수준에서 자녀의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수의 자녀는 친밀감의 증대와 개별 자녀에 대한 투자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른 시기에 유산상속을 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6-1-2. 코호트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의 수가 적으면 친밀감이 커지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빨리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반대로 자녀수가 많으면 자녀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유산상속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의 수가 적으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주의적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맥락에서는 유산상속을 늦출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전자의 유인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2. 자녀수의 증대는 유산상속을 미루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수의 감소는 유산상속을 앞당기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측정되는 고령화 현상은 노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유산상속을 늦추려는 동기를 강화시킬 것이지만 가족의존적인 이들에게 유산상속을 앞당기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수명연장으로 늘어난 자녀와의 접촉증대는 시기적으로 빠른 유산상속에 대한 유인을 늘릴 것이지만 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 6-3. 기대수명의 연장은 유산상속시기를 늦출 것이다.

코호트사망확률이 늘게 되면 자신이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유산상속을 빨리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가설 6-4. 높은 코호트사망확률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연령으로 대변되는 개인적 수준의 고령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건강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유산상속동기는 떨어지고 개인소비를 위한 저축동기를 높일 것이다. 반면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유산상속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또한 연령의 증대로 인한 건강악화는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촉진할 것이다.

가설 6-5.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연령의 증가로 인한 유산상속동기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제2절 통계적 방법론

자료와 측정에 관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유산상속시기에 관한 변수는 사망 전 상속예정, 사망 후 상속, 그리고 생각해 보지 않았음의 범주를 가진 변수이다. 이 변수의 값들은 앞장에서 살펴본 유산상속여부와 다르게 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장의 종속변수를 분석할 경우 다범주 로짓(multinomial logits) 모형을 사용하였다.

앞장에서 정의하였듯이 먼저 종속변수가 j 범주를 가질 확률을 π_j 라고 표현하자. 즉 $P(Y=j|\mathbf{t},\mathbf{x})=\pi_j(\mathbf{t},\mathbf{x})$, $\sum_j \pi_j=1$. 이 때, 본연구와 관련하여 다범주 로짓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pi_j(\mathbf{t},\mathbf{x})/\pi_1(\mathbf{t},\mathbf{x})]=\alpha_j+\beta_j'\mathbf{t}+\lambda_j'\mathbf{x} \quad <6-1>$$

여기서 $\pi_1(\mathbf{t},\mathbf{x})$ 는 기본범주의 확률을 뜻하는데 이는 사망 전 상속예정을 기본범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범주 로짓 모형은 두 개의 범주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일반 로짓 모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계수를 보여주게 된다. 일반 로짓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다범주 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로짓 모형을 사용할 경우 통계적 효율성(efficiency)이 떨어져 추정오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Agresti, 2002).

<식 6-1>에서 α 값은 절편을 뜻하고 이는 $J-1$ 개의 절편을 구하게 된다. β 나 λ 또한 $J-1$ 개의 추정치가 나온다. 우리의 관심은 처치변수와 연관된 계수인 β 의 방향과 크기에 모아진다.

제3절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6-1>은 유산상속시기관련 기술통계치를 보여준다. 앞서 말했다시피 노인들이 아직까지 유산을 상속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사례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1〉 기술통계: 유산상속시기

		1994 (N=511)			1998 (N=844)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상속 시기	죽은 다음 예정 있음	388	75.9	74.8	708	83.9	82.2
	생각 없음	31	6.1	5.8	91	10.8	11.8
		92	18.0	19.4	45	5.3	6.0
자녀 수	1	26	5.1	5.1	24	2.8	3.3
	2	33	6.5	7.8	37	4.4	5.6
	3	55	10.8	13.2	94	11.1	13.6
	4+	397	77.7	73.9	689	81.6	77.5
아들 수	0	21	4.1	4.1	23	2.7	2.8
	1	105	20.5	23.0	168	19.9	22.6
	2	153	29.9	31.8	268	31.8	32.1
	3+	232	45.4	41.2	385	45.6	42.5
딸 수	0	47	9.2	10.3	61	7.2	8.1
	1	104	20.4	21.5	167	19.8	22.6
	2	116	22.7	21.6	218	25.8	26.3
	3+	244	47.7	46.6	398	47.2	43.0
동거 아들 수	0	370	72.4	69.7	618	73.2	70.4
	1	131	25.6	28.2	211	25.0	27.5
	2+	10	2.0	2.0	15	1.8	2.0
동거 딸 수	0	487	95.3	93.7	785	93.0	91.5
	1	22	4.3	6.0	53	6.3	7.3
	2+	2	0.4	0.4	6	0.7	1.2
비동거 아들 수	0	50	9.8	11.6	83	9.8	11.8
	1	124	24.3	26.8	183	21.7	23.4
	2+	337	65.9	61.6	578	68.5	64.8
비동거 딸 수	0	51	10.0	11.4	73	8.6	9.9
	1	103	20.2	21.4	165	19.5	22.4
	2+	357	69.9	67.3	606	71.8	67.7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6-1〉 계속

		2004 (N=1366)			2012 (N=176)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상속 여부	죽은 다음	749	54.8	54.9	55	31.3	31.6
	예정 있음	496	36.3	36.1	59	33.5	33.7
	생각 없음	121	8.9	9.0	62	35.2	34.7
자녀 수	1	45	3.3	3.6	22	12.5	12.3
	2	107	7.8	8.4	31	17.6	17.5
	3	230	16.8	18.3	53	30.1	30.0
	4+	984	72.0	69.7	70	39.8	40.2
아들 수	0	49	3.6	4.1	12	6.8	6.7
	1	315	23.1	23.4	75	42.6	42.5
	2	516	37.8	38.1	63	35.8	35.8
	3+	486	35.6	34.4	26	14.8	15.0
딸 수	0	138	10.1	10.1	43	24.4	24.3
	1	364	26.6	28.6	57	32.4	32.4
	2	350	25.6	26.1	33	18.8	18.6
	3+	514	37.6	35.1	43	24.4	24.7
동거 아들 수	0	1045	76.5	75.0	138	78.4	78.5
	1	292	21.4	22.9	32	18.2	18.2
	2+	29	2.1	2.1	6	3.4	3.3
동거 딸 수	0	1263	92.5	91.4	162	92.0	92.0
	1	97	7.1	8.1	11	6.3	6.3
	2+	6	0.4	0.5	3	1.7	1.7
비동거 아들 수	0	143	10.5	11.6	36	20.5	20.2
	1	359	26.3	26.7	67	38.1	38.0
	2+	864	63.3	61.8	73	41.5	41.8
비동거 딸 수	0	162	11.9	12.4	52	29.5	29.5
	1	378	27.7	29.2	51	29.0	29.0
	2+	826	60.5	58.4	73	41.5	41.6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6-1〉 계속

		1994 (N=511)			1998 (N=844)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연령	65-69	284	55.6	55.8	428	50.7	51.4
	70-74	137	26.8	27.2	265	31.4	31.1
	75-79	66	12.9	12.0	106	12.6	12.6
	80+	24	4.7	4.9	45	5.3	4.9
성별	남성	293	57.3	59.6	457	54.1	54.1
	여성	218	42.7	40.4	387	45.9	45.9
결혼상태	혼인	388	75.9	77.1	636	75.4	74.1
	기타	123	24.1	22.9	208	24.6	25.9
교육	초등	447	87.5	81.0	667	79.0	73.0
	중등	29	5.7	7.8	70	8.3	9.6
	고등+	35	6.8	11.2	107	12.7	17.4
취업	아니오	263	51.5	56.7	366	43.4	54.8
	예	248	48.5	43.3	478	56.6	45.2
경제상태	좋다	88	17.2	18.5	119	14.1	14.8
	보통	204	39.9	41.1	382	45.3	45.4
	나쁘다	219	42.9	40.4	343	40.6	39.8
건강상태	좋다	197	38.6	42.5	285	33.8	35.9
	보통	125	24.5	24.9	221	26.2	26.8
	나쁘다	189	37.0	32.6	338	40.0	37.3
거주지	동	151	29.5	50.2	291	34.5	55.4
	읍면	360	70.5	49.8	553	65.5	44.6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6-1〉 계속

		2004 (N=1366)			2012 (N=176)		
		빈도	% ¹⁾	% ²⁾	빈도	% ¹⁾	% ²⁾
연령	65-69	694	50.8	51.6	93	52.8	52.3
	70-74	422	30.9	30.4	34	19.3	19.4
	75-79	168	12.3	12.1	34	19.3	19.6
	80+	82	6.0	5.9	15	8.5	8.7
성별	남성	669	49.0	49.9	102	58.0	58.1
	여성	697	51.0	50.1	74	42.0	41.9
결혼상태	혼인	997	73.0	74.1	152	86.4	86.4
	기타	369	27.0	25.9	24	13.6	13.6
교육	초등	1000	73.2	68.7	65	36.9	36.8
	중등	140	10.2	10.9	39	22.2	22.2
	고등+	226	16.5	20.4	72	40.9	40.9
취업	아니오	754	55.2	60.3	126	71.6	71.5
	예	612	44.8	39.7	50	28.4	28.5
경제상태	좋다	162	11.9	13.0	32	18.2	17.8
	보통	600	43.9	44.3	108	61.4	61.9
	나쁘다	604	44.2	42.8	36	20.5	20.2
건강상태	좋다	496	36.3	37.4	62	35.2	35.3
	보통	365	26.7	27.6	76	43.2	43.1
	나쁘다	505	37.0	35.0	38	21.6	21.6
거주지	동	757	55.4	66.3	135	76.7	77.0
	읍면	609	44.6	33.7	41	23.3	23.0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6-1>을 보면 상속시기와 관련하여 2012년의 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망 후에 상속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상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에 상속하고자 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 외의 변수에서는 <표 5-1>을 해석하면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유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른 변수들에서는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때와 주었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거주지 관련 변수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유사하다. 다만 동거 아들 수의 경우 <표 5-1>에 비해 <표 6-1>에서 0인 범주의 분포가 올라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모형추정결과

<표 6-2>에서 <표 6-4>까지는 설명변수별 유산상속시기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시기

		죽은 다음 대비 예정 있음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1.911	(6.338)	-5.252	(5.883)
자녀 수	2	-1.412	(2.777)	-9.249	*** (2.705)
	3	-3.073	(5.711)	-19.578	*** (5.564)
	4+	-4.420	(8.745)	-30.131	*** (8.574)
기간 TFR		0.165	(8.535)	36.020	*** (8.920)
코호트 TFR		0.189	(0.172)	0.303	(0.170)
고령화율		0.280	* (0.131)	-0.436	** (0.133)
코호트사망률		0.087	(0.143)	-0.056	(0.141)
기대수명		0.199	(0.138)	0.375	** (0.145)
연령	70-74	-0.003	(0.122)	-0.212	(0.135)
	75-79	0.044	(0.107)	0.059	(0.117)
	80+	0.078	(0.113)	0.130	(0.123)
성별	여성	0.070	(0.100)	0.174	(0.109)
결혼상태	기타	0.010	(0.114)	-0.183	(0.133)
교육	중등	0.565	* (0.244)	-0.200	(0.209)
	고등+	0.726	** (0.225)	0.029	(0.187)
취업	아니오	0.770	*** (0.215)	-0.536	** (0.178)
경제상태	보통	0.540	(0.439)	2.130	*** (0.428)
	나쁘다	-0.368	(0.569)	-1.531	** (0.534)
건강상태	보통	-2.213	*** (0.489)	4.000	*** (0.609)
	나쁘다	-0.057	(0.104)	-0.231	* (0.113)
거주지	읍면	0.279	** (0.100)	-0.045	(0.111)

P-value: *<0.05, **<0.01, ***<0.001

우선 <표 6-2>를 살펴보면, 자녀수 관련해서 죽은 다음 대비 예정 있음이나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 모두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후자의 모형에 있는 계수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 비해 두 명이상인 경우 생각 없다는 응답에 비해 죽은 후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수가 상속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의 모형에서 계수의 절대 값이 순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하한선 효과보다는 계단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를 아들 수 및 딸 수로 나눈 모형에서 아들 수에 있는 계수와 매우 유사하다(<표 6-3> 참조). 하지만 딸 수의 경우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의 모형에서 딸이 없을 경우에 비해 한 명이 있을 경우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세 명이상이 있는 경우 그럴 확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에 제시된 동거 자녀에 따른 모형추정 결과를 비교하면 이러한 결과가 동거 아들의 경우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거 딸의 경우 매우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동거 아들이 한 명이상인 경우 동거 아들이 없는 경우에 비해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의 확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동거 딸의 경우 한 명도 없을 경우에 비해 한명이 있을 경우 이러한 확률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동거 딸이 두 명이상일 경우 이러한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비동거 아들 수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비동거 아들이 두 명이상 있는 경우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의 확률이 떨어지지만 비동거 딸 수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들과 관련하여 아들 수가 많으면 유산상속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확률을 올린다는 일반론적인 결론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딸의 경우 딸의 구성과 동거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 어떤 일반론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6-3〉 아들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시기

		죽은 다음 대비 예정 있음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0	2.542	(6.344)	-5.760	(5.883)
아들 수	1	-1.113	(2.782)	-9.245	*** (2.706)
	2	-2.459	(5.720)	-19.643	*** (5.566)
	3+	-3.425	(8.758)	-30.411	*** (8.576)
딸 수	1	-1.165	(8.537)	37.191	*** (8.932)
	2	0.191	(0.173)	0.323	(0.171)
	3+	0.250	(0.131)	-0.403	** (0.133)
기간 TFR		0.076	(0.143)	-0.037	(0.141)
코호트 TFR		0.218	(0.139)	0.381	** (0.145)
고령화율		0.016	(0.123)	-0.171	(0.136)
코호트사망률		0.048	(0.107)	0.058	(0.117)
기대수명		0.046	(0.113)	0.129	(0.124)
연령	70-74	0.065	(0.100)	0.196	(0.109)
	75-79	0.015	(0.114)	-0.198	(0.133)
	80+	0.110	(0.147)	-0.443	** (0.148)
성별	여성	0.086	(0.155)	-0.201	(0.152)
결혼상태	기타	0.239	(0.149)	-0.590	*** (0.149)
교육	중등	-0.456	* (0.219)	-0.697	** (0.220)
	고등+	-0.199	(0.216)	-0.635	** (0.219)
취업	아니오	-0.073	(0.222)	-0.784	*** (0.226)
경제상태	보통	0.490	(0.440)	2.149	*** (0.428)
	나쁘다	-0.317	(0.570)	-1.497	** (0.534)
건강상태	보통	-2.238	*** (0.489)	4.081	*** (0.609)
	나쁘다	-0.077	(0.104)	-0.233	* (0.113)
거주지	읍면	0.261	** (0.100)	-0.042	(0.111)

P-value: *<0.05, **<0.01, ***<0.001

〈표 6-2〉부터 〈표 6-4〉에 이르는 결과를 상호 비교해 보면 딸 수에 따른 결과 뿐 아니라 다른 저출산고령화관련 변수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진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의 경우 자녀수 모형에 관한 추정결과인 〈표 6-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도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자녀수를 모형으로 했을 때 고령화율이

〈표 6-4〉 동거 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시기

		죽은 다음 대비 예정 있음		죽은 다음 대비 생각 없음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절편	0	1.610	(6.337)	-6.762	(5.919)
동거 아들 수	1	-1.116	(2.774)	-8.882	** (2.715)
	2+	-2.459	(5.706)	-18.899	*** (5.585)
동거 딸 수	1	-3.445	(8.736)	-29.269	*** (8.606)
	2+	-1.053	(8.534)	36.226	*** (8.950)
비동거 아들 수	1	0.231	(0.173)	0.307	(0.171)
	2+	0.233	(0.132)	-0.382	** (0.133)
비동거 딸 수	1	0.057	(0.144)	-0.018	(0.142)
	2+	0.206	(0.138)	0.386	** (0.146)
기간 TFR		-0.031	(0.122)	-0.175	(0.137)
코호트 TFR		0.009	(0.108)	0.008	(0.118)
고령화율		0.044	(0.113)	0.134	(0.123)
코호트사망률		0.055	(0.100)	0.171	(0.109)
기대수명		0.007	(0.115)	-0.183	(0.133)
연령	70-74	0.194	(0.140)	-0.408	** (0.145)
	75-79	0.169	(0.131)	-0.400	** (0.129)
	80+	0.145	(0.151)	0.015	(0.157)
성별	여성	0.255	(0.152)	-0.177	(0.160)
결혼상태	기타	0.504	(0.439)	2.081	*** (0.429)
교육	중등	-0.316	(0.568)	-1.424	** (0.536)
	고등+	-2.189	*** (0.490)	4.052	*** (0.612)
취업	아니오	-0.009	(0.105)	-0.243	* (0.115)
경제상태	보통	0.274	** (0.101)	-0.011	(0.111)
	나쁘다	0.632	*** (0.162)	-0.028	(0.201)
건강상태	보통	0.488	(0.430)	-0.946	(0.550)
	나쁘다	0.149	(0.113)	-0.202	(0.128)
거주지	읍면	-0.683	(0.382)	0.716	** (0.276)

P-value: *<0.05, **<0.01,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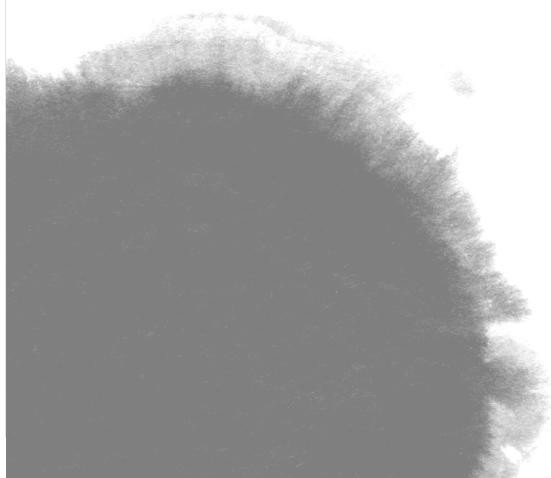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가지는 유의미도가 보다 구체적인 자녀구성 변수로 바뀔 때 그 유의미도를 잃는다는 것으로 고령화율의 효과가 자녀구성 변수를 통해 매개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녀구성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고령화율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해석하는 통계적인 설명이기는 하지만 사회이론적인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다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구성에 관한 변수의 효과가 크고 유의미하기 때문에 고령
화율 변수의 효과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론적 추정의 입장에
서는 후자의 설명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추정한 모형의 결과로
는 어떤 한 이론이 옳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이
러한 대안적인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생각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7장

유산상속형태 분석





제7장 유산상속형태 분석

제1 절 이론적 배경

상속은 주로 지위계승(succession)과 재산승계(inheritance)의 두 종류로 나뉘며, 한국적 맥락에서는 무엇을 상속하는가(제사상속, 신분상속, 재산상속),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단독상속, 공동상속), 그리고 상속인의 결정 방법(법정 상속, 유언상속) 등에 따라 크게 호주상속, 제사상속, 그리고 재산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문영소·김양희, 1999; 이삼식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상속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향후 재산상속에 대한 의도 및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 재산상속의 시점(재산상속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와 2) 재산상속의 방식(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룬 65세 이상 유자녀 노인들의 상속여부 및 상속시기에 대한 분석에 이어 마지막으로 재산상속방식,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장자우대 상속으로 인해 제사나 호주의 지위와 더불어 재산이 동시에 승계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역시 장자에게 동시에 부과되었으며, 따라서 장자 중심의 상속형태는 부모 부양의무를 장자에게 지우고 그에 따른 보상적인 측면으로 시행되어온 성격이 강하다(신화용 외, 1997). 하지만 핵가족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등과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균분상속이 일반화

되면서 장자우대 상속에 기반한 장자 상속 부양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중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자신들을 돌볼 자녀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자녀에 의한 부모세대의 노후부양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노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후부양의 주체 역시 점점 자녀들에서 본인 혹은 사회로 옮겨가면서(김정석, 2005; 석재은, 2009), 향후 기존의 장자중심 상속 및 부양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노인들의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유산상속방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시 말해,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기존의 장자 중심 상속방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어떠한 측면들이 유산상속방식에 있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태도가 반드시 행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태도의 변화로부터 행위의 변화를 결론짓는 것이 항상 옳은 바는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경험적 연결고리를 상정할 때(Fishbein & Ajzen, 1975; Shuman & Johnson, 1976), 유산상속방식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행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장, 차남, 아들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균분상속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2005년 호주제마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아들 우대의 상속의식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면, 지난 10여 년 간의 유산상속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면서 제도와 의식 및 행위 사이의 간극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통계적 방법론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측정은 1) 장남에게만, 2) 장남에게 더 많이, 3) 아들에게만, 그리고 3) 모두에게 골고루 네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유산상속방식 및 대상에 있어 장자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의 정도’를 순서척도(ordinal scale)로 측정한 순서형 범주 변수(ordinal categorical variable)로 볼 수 있다. 응답의 수준이 낮은 범주(“장남에게만”)에서 중간 범주(“장남에게 더 많이”, “아들에게만”)를 거쳐 높은 범주(“모두에게 골고루”)로 옮겨갈수록 장자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덜 한 상태를 나타내며, ‘2) 장남에게 더 많이’를 ‘1) 장남에게만’과 비교하는 것이 ‘4) 모두에게 골고루’를 ‘3) 아들에게만’과 비교하는 것과 ‘장자 중심의 전통적 유산상속 가치가 덜 하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장에서는 순서형 범주 변수를 종속 변수로 두고 실시하는 비선형 회귀분석 중 하나인 누적 로짓 모형(cumulative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유산상속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며, 이 통계적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유산상속방식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누적 로짓 모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통계적 기호들을 도입하도록 하자. 설명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를 Y 라하고 종속 변수 내에 존재하는 범주를 J 라 했을 때, 유산상속대상 변수 Y 는 4개의 범주를 갖는 순서형 변수이다 (즉, $j = 1, 2, 3, 4$). 먼저 t 와 x 의 특성을 갖는 개인이 j 범주에 속할 확률을 π_j 라고 표현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Y=j|t,x)=\pi_j(t,x),$$

$$\sum_j \pi_j = 1.$$

여기에서 t 는 처치변수(=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설명변수)를 뜻하고 x 는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뜻한다. 식의 왼 편에서 $|$ 의 의미는 “주어진(given)”이라는 뜻이고 이는 확률이 조건부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데, 처치변수가 t 값을 가지고 혼동변수가 x 값을 가질 때 Y 가 j 범주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변수들은 모두 복수의 범주를 가지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조작화되었기 때문에 변수개념당 하나 이상의 변수들로 변환되어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 때문에 주어진 수식에서는 열벡터로 표현되고 있다. 이 때, j 이하의 범주에 속할 누적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Agresti, 2002; Long, 1997; Long & Freese, 2006; Powers & Xie, 2000; StataCorp, 2009).

$$P(Y \leq j|t,x) = \pi_1(t,x) + \dots + \pi_j(t,x) \quad <7-1>$$

누적 로짓 모형은 <식 7-1>에서 정의된 누적 확률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에서와 마찬가지로 로그 오즈(log-odds)의 형태, 즉 로짓(logit)으로 변환시킨 후, 주요 설명변수들과의 선형 관계를 상정한다. 일반적인 누적 로짓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logit}[P(Y \leq j|t,x)] = \log\left[\frac{P(Y \leq j|t,x)}{1 - P(Y \leq j|t,x)}\right] = \log\left[\frac{\pi_1(t,x) + \dots + \pi_j(t,x)}{\pi_{j+1}(t,x) + \dots + \pi_J(t,x)}\right] \quad <7-2>$$

만약 Y 가 두 개의 범주만을 갖는 종속변수라면 <식 7-2>는 일반적인 이항 로짓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식 7-2>에서 정의된 누적 로짓을 종속 변수로 삼고 처치변수 t 와 혼동변수 x 를 설명변수로 삼는 회귀분석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ext{logit}[P(Y \leq j)|x,t] = \beta_j t + \lambda' x \quad <7-3>$$

<식 7-3>에서 τ 는 각 누적 로짓에서의 절단점(cutpoint)을 나타내고, 이 모형을 추정하면 $J-1$ 개의 절단점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유산상속방식 변수의 경우는 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3개의 절단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범주 vs. 두 번째, 세 번째 범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범주 vs. 세 번째 범주 등의 누적 로짓 모형에서 각각 추정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j 의 값이 커질수록 τ 의 값이 정(定)의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j 이하의 범주가 많아지면서 누적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β 는 처치변수와 연관된 계수 나타내고, λ 는 혼동변수의 계수 값을 의미하는 벡터인데, 우리의 주요 관심은 이 계수들의 방향과 크기, 그 중에서도 β 에 있다. 흔히 벡터는 열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β 의 위첨자인 ‘는 각 행렬의 차원(dimension)을 맞추기 위한 전치(transpose)를 뜻한다.

식 <7-3>의 가장 큰 특징은 누적 로짓의 범주들이 변화해도, 즉 j 의 값이 변화해도 설명변수의 영향은 β 혹은 λ 로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는 분석 대상으로 설정된 종속변수의 로그 누적 승산치가 독립변수인 t 혹은 x 의 값에 따라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승산비(odds-ratio)로 표현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t 혹은 x 의 값의 변화에 따라 β 혹은 λ 의 양만큼 비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Agresti [2002] 책의 276쪽 참조)²⁾. 이러한 이유에서 누적 로짓 모형은 비례 승산 모형(proportional odds model) 혹은 평행 회귀 모형(parallel regression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McCullagh, 1980; McCullagh & Nelder, 1989).

앞 장의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본 장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차이는 본장에서는 기간합계출산율과 고령화율의 기간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2) <식 7-3>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두어야 할 점은 <식 5-3>과 계수의 해석이 반대라는 점이다. 즉 <식 5-3>에서는 각 계수의 방향이 양의 값을 갖고 있었으나 <식 7-3>에서는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식 7-3>에서 β 와 λ 앞에 음수가 붙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식 5-3>에서는 양의 값이 붙었다.

이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보다는 기간을 뜻하는 연도변수를 가변수로 사용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간합계출산율과 고령화율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연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가. 자료 및 분석표본

지난 10여 년 간 한국 노인들의 유산상속방식 태도 변화 및 그 원인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4) 저출산, 고령화시대 유산상속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네 종류이다. 각각의 자료는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횡단면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유자녀 노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중 아래의 통계분석에 포함된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노인들만을 추출한 결과, 최종 분석 표본에는 2004년 조사의 1476명, 2008년의 8633명, 2011년의 8244명, 그리고 2012년의 381명이 포함되었다(총 18,734명).

나. 측정 및 기술통계

<표 7-1>은 이후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의 기술통계를 담고 있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주요 변수들은 <표 7-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범

주형 변수로 조작화 되었으며, 변수명, 변수값, 그리고 각각의 변수값이 취하는 빈도 및 백분율이 연도 별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유산상속방식 변수를 살펴보면, ‘장남에게만’, ‘장남에게 많이’, ‘아들에게만’, ‘모두에게 골고루’의 네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수록 ‘유산상속방식 및 대상에 있어 장자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를 서열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유산상속방식에 있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남에게만 물려주겠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2004년 41% → 2012년 7.8%), “모두에게 골고루 물려주겠다”라고 답한 노인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이다(2004년 36.7% → 2012년 63.9%). 대부분의 응답률 변화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2008년과 2012년 사이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조작화 이전의 종속변수는 6개에서 10개 정도의 응답범주를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 중에 범주만을 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재산을 가족 내에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 외의 대상(예: 사회에 환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사용된 자료들 간의 응답 문항의 변화로 인해 반복 측정되지 않아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들(예: 수발 간호를 한 자녀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생각해 본 적 없음,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을 제외 하는 것 역시 큰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이렇게 제외된 응답자의 비율은 매해 평균 10%에서 20% 정도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연구의 핵심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방식(대상 및 정도)의 태도 변화, 그 중에서도 장남 중심의 상속 문화 및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 만큼, 1) 지난 10여 년간 장남 중심의 상속 행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기술하고, 2) 그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등을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선택한 네 범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사료된다.

〈표 7-1〉 기술통계: 유산상속형태

변수명	변수값	2004 (n=1476)			2008 (n=8633)			2011 (n=8244)			2012 (n=381)		
		빈도	%1)	%2)	빈도	%1)	%2)	빈도	%1)	%2)	빈도	%1)	%2)
상속 방식	장남만	636	43.1	41.0	597	6.9	7.3	822	10.0	9.8	30	7.9	7.8
	장남많이	228	15.4	15.7	1964	22.7	21.5	1922	23.3	21.3	89	23.4	23.5
	아들만	113	7.7	6.5	206	2.4	2.2	159	1.9	1.6	18	4.7	4.7
	골고루	499	33.8	36.7	5866	67.9	69.0	5341	64.8	67.3	244	64.0	63.9
자녀 수	1	45	3.0	3.1	313	3.6	3.6	309	3.7	3.8	44	11.5	11.4
	2	114	7.7	8.4	837	9.7	11.6	915	11.1	14.6	71	18.6	18.5
	3	235	15.9	17.0	1771	20.5	21.7	1975	24.0	25.7	108	28.3	28.4
	4+	1082	73.3	71.5	5712	66.2	63.0	5045	61.2	55.8	158	41.5	41.7
아들 수	0	26	1.8	1.9	377	4.4	4.8	361	4.4	5.1	24	6.3	6.3
	1	347	23.5	24.1	2175	25.2	27.1	2278	27.6	30.7	142	37.3	37.3
	2	542	36.7	36.7	3185	36.9	37.0	3184	38.6	38.5	148	38.8	38.8
	3+	561	38.0	37.2	2896	33.5	31.1	2421	29.4	25.8	67	17.6	17.7
딸 수	0	162	11.0	10.9	1016	11.8	12.7	1082	13.1	13.9	89	23.4	23.3
	1	360	24.4	26.2	2368	27.4	28.1	2397	29.1	31.4	123	32.3	32.2
	2	385	26.1	26.5	2344	27.2	27.0	2175	26.4	25.2	86	22.6	22.6
	3+	569	38.6	36.5	2905	33.6	32.2	2590	31.4	29.5	83	21.8	21.9
동거 아들 수	0	1074	72.8	71.5	6665	77.2	76.4	6503	78.9	77.5	291	76.4	76.4
	1	369	25.0	26.3	1867	21.6	22.5	1633	19.8	21.1	75	19.7	19.7
	2+	33	2.2	2.2	101	1.2	1.1	108	1.3	1.4	15	3.9	3.9
동거 딸 수	0	1397	94.6	93.9	8160	94.5	93.7	7819	94.8	93.7	349	91.6	91.6
	1	75	5.1	5.8	455	5.3	6.0	400	4.9	5.9	23	6.0	6.0
	2+	4	0.3	0.2	18	0.2	0.3	25	0.3	0.4	9	2.4	2.4
비동거 아들 수	0	141	9.6	10.4	895	10.4	11.4	845	10.2	12.3	74	19.4	19.4
	1	382	25.9	26.4	2406	27.9	29.3	2545	30.9	33.0	132	34.6	34.6
	2+	953	64.6	63.2	5332	61.8	59.2	4854	58.9	54.7	175	45.9	46.0
비동거 딸 수	0	179	12.1	12.4	1137	13.2	14.2	1182	14.3	15.4	112	29.4	29.3
	1	375	25.4	27.0	2378	27.5	28.5	2442	29.6	32.1	110	28.9	28.8
	2+	922	62.5	60.6	5118	59.3	57.2	4620	56.0	52.5	159	41.7	41.9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표 7-1〉 계속

변수명	변수값	2004 (n=1476)			2008 (n=8633)			2011 (n=8244)			2012 (n=381)		
		빈도	%1)	%2)	빈도	%1)	%2)	빈도	%1)	%2)	빈도	%1)	%2)
연령	65-69	664	45.0	46.0	2892	33.5	38.2	1944	23.6	30.1	153	40.2	40.0
	70-74	440	29.8	28.8	2715	31.4	28.6	2531	30.7	30.7	89	23.4	23.3
	75-79	223	15.1	14.8	1718	19.9	17.2	2185	26.5	22.3	81	21.3	21.3
	80+	149	10.1	10.4	1308	15.2	15.9	1584	19.2	16.9	58	15.2	15.4
성별	남성	645	43.7	44.5	3562	41.3	41.1	3290	39.9	43.1	177	46.5	46.6
	여성	831	56.3	55.5	5071	58.7	58.9	4954	60.1	56.9	204	53.5	53.4
결혼 상태	혼인	990	67.1	68.0	5173	59.9	66.7	5110	62.0	68.6	282	74.0	74.1
	기타	486	32.9	32.0	3460	40.1	33.3	3134	38.0	31.4	99	26.0	25.9
교육	초등	1109	75.1	71.3	6431	74.5	71.3	6081	73.8	69.2	190	49.9	49.8
	중등	129	8.7	9.5	954	11.1	11.6	951	11.5	13.0	67	17.6	17.6
	고등+	238	16.1	19.2	1248	14.5	17.2	1212	14.7	17.9	124	32.5	32.5
취업	아니오	834	56.5	62.1	5730	66.4	67.5	5352	64.9	64.4	306	80.3	80.2
	예	642	43.5	37.9	2903	33.6	32.5	2892	35.1	35.6	75	19.7	19.8
경제 상태	좋다	194	13.1	14.1	2138	24.8	26.3	1467	17.8	18.7	57	15.0	14.8
	보통	685	46.4	46.3	3074	35.6	34.8	3082	37.4	38.5	201	52.8	53.0
	나쁘다	597	40.4	39.6	3421	39.6	38.9	3695	44.8	42.8	123	32.3	32.1
건강 상태	좋다	534	36.2	36.8	2113	24.5	27.3	2597	31.5	34.0	115	30.2	30.3
	보통	408	27.6	28.4	1639	19.0	18.7	1803	21.9	21.5	128	33.6	33.5
	나쁘다	534	36.2	34.8	4881	56.5	54.0	3844	46.6	44.5	138	36.2	36.2
거주지	동	727	49.3	60.9	5226	60.5	65.3	4895	59.4	64.6	284	74.5	74.8
	읍면	749	50.7	39.1	3407	39.5	34.7	3349	40.6	35.4	97	25.5	25.2

주: 1) 가중치를 주지 않았을 경우 기술통계

2) 가중치를 주었을 경우 기술통계.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자녀 수 및 자녀 구성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자. 우선 과거의 높은 출산 수준을 반영하듯 대다수의 노인들이 총 네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4년 71.5%, 2008년 63%, 2011년 55.8%, 2012년 41.7%). 하지만 그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았던 젊은 노인세대들의 신규 진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변화는 아들 수, 딸 수 변수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적은 수의 아들, 딸을 가진 노인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동거하는 아들 수와 딸 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자녀 수 변수들에서 관찰되는 만큼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간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만약 자녀 중의 한 명과 동거했다면 그 대상은 한 명의 아들(약 20% 정도)이라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 제시되고 있는 비동거 아들 수와 비동거 딸 수 변수의 기술통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음이 재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자. 먼저 분석에 포함된 노인들의 상대적인 연령 구성을 보면, 자료 수집 시기에 관계없이 젊은 노인들(65세에서 69세)의 상대적인 구성 비율이 높으나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노인들의 성별 구성은 지난 10여 년간 눈에 띄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혼인상태 역시 대부분의 노인들(대략 70%)이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2012년 현재 초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신규 노인 세대가 진입하면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 일을 하는 노인보다 항상 적었으나, 지난 10여 년간 그 상대적 비율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라 생각하는 노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대략 70-80%), 건강 상태 역시 대부분의 노인들이 스스로를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60-70%). 2012년 현재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많으며(각각 74.8%, 25.2%), 시간이 지날수록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모형추정결과

앞 장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장에서도 세 종류의 통계적 모형(‘자녀 수 모형’, ‘아들딸 수 모형’, ‘동거자녀 모형’)을 설정하고, 그 분석결과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표 7-2>는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자녀 수 모형을 누적 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2> 자녀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변수명	변수값	일반누적로짓모형		
		계수		표준오차
연도	2008	2.620	†	1.439
	2011	2.998		2.092
	2012	2.790		2.093
자녀 수	2	0.430	†	0.230
	3	0.268		0.213
	4+	0.203		0.204
기간 TFR		(n/a)		(n/a)
코호트 TFR		0.002		0.175
고령화율		(n/a)		(n/a)
코호트사망률		12.680		12.630
기대수명		-0.440		0.796
연령	70-74	-2.886		4.076
	75-79	-6.034		8.366
	80+	-9.743		12.987
성별	여성	-0.078		0.079
결혼상태	기타	-0.271	***	0.078
교육	중등	0.084		0.111
	고등+	0.311	**	0.112
취업	예	-0.188	*	0.075
경제상태	보통	-0.021		0.088
	나쁘다	0.014		0.091
건강상태	보통	-0.080		0.090
	나쁘다	-0.035		0.079
거주지 절편	읍면	-0.310	***	0.072
	1	-6.239		12.275
	2	-5.027		12.274
	3	-4.855		12.274

P-value: † <0.10, * <0.05, ** <0.01, *** <0.001

우선 누적 로짓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의 범주들 중에서 하위 범주보다 상위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반면에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위 범주보다 하위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⁴⁾.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유산상속방식 태도 종속변수의 경우, 하위 범주로 갈수록 ‘장자 중심의 전통적 유산상속방식 고수’를, 상위 범주로 갈수록 ‘장자 중심의 유산상속방식 약화 혹은 균분상속 지지’를 의미하므로 <표 7-2>에 나타나는 특정 변수의 계수 값이 양의 값을 보인다는 것은 그 변수의 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장자 중심의 유산상속방식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균분상속 지지), 반대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변수는 그 변수의 변수 값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이 여전히 장자중심의 전통적인 유산상속방식을 고수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의해 <표 7-2>에 나타난 변수들의 계수 값 및 통계적 유의도를 해석하자면, 우선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노인들의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균분상속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연도효과’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부분효과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 통계적 유의성은 단순 기술통계표에서 살펴보았던 만큼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수 값의 절대적인 크기 및 방향성은 기대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 수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노인들이 ‘모두에게 골고루 물려주겠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장자에게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당연히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흥미 있는 사실은 자녀가 1명인 노인에 비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자녀수가 2명인 경우 균분상속을 지지할 확률이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높지만, 자녀수가 3명 혹은 4명 이상인 노인

4) 앞서 밝힌 것처럼 이러한 해석은 앞선 5장의 해석과 반대라는 점을 유념하자.

들은 자녀가 1명인 노인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소 비일관적으로 보이는 이 결과는 자녀 수 효과를 단순히 총 자녀수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구성까지 고려한 자녀의 수, 즉 자녀수를 아들 수와 딸 수로 나누어 볼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모형 다음으로 추정하는 두 번째 통계모형인 ‘아들딸 수 모형’에서는 총 자녀수를 아들 수와 딸 수로 나누어 그 효과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그 전에 ‘자녀 수 모형’에 포함된 나머지 변수들의 효과를 정리해보자.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는 배경 변수로서 포함된 코호트 TFR (이상 저출산 배경변수), 코호트 사망률, 평균기대수명(이상 고령화 배경변수)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그 어느 것도 유산상속방식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개인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저출산에서 기인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기존의 장자 중심의 상속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산상속방식의 결정에 있어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출산율 혹은 기대수명의 변동보다 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자녀의 수가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고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 더 미시적인 기제가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연령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 변수의 모든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연령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노인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유산상속 가치관을 고수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직관과는 반대로, <표 7-2>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연령은 유산상속방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 - 연령이 높아질수록 큰 음의 값을 가짐 - 은 우리의 직관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성별 역시 유산상속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나, 결혼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여전히 결

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보다 장자중심의 유산상속방식을 고수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혼인상태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장자중심의 상속행태를 고수함을 통해 보상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말하면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보다 평등한 상속방식을 택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교육수준효과는 예상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균분상속을 지지할 확률이 높지만, 초등교육 이하를 받은 노인들과 중등 교육을 받은 노인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오직 고등학교 교육 이상 받은 노인들만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인들이 취업하지 않고 있는 노인보다 장자중심의 유산상속방식을 고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보통 사회경제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균분상속을 지지할 것이라는 직관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활동이 경제적 곤궁 및 필요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면, 은퇴기간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집단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그런 집단일수록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가치관을 고수함을 통해 전통적인 부양방식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경제상태나 건강상태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산상속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전통적인 장자중심의 유산상속방식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자녀구성효과’에 대한 기대에서 아키된 두 번째 모형인 ‘아들딸 수 모형’의 누적 로짓 모형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표 7-3>)

〈표 7-3〉 아들 딸 수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변수명	변수값	일반누적로짓모형		
		계수		표준오차
연도	2008	3.026	*	1.443
	2011	3.613	†	2.099
	2012	3.391		2.099
아들 수	2	-1.937	***	0.314
	3	-1.489	***	0.312
	4+	-1.433	***	0.313
딸 수	2	0.163		0.122
	3	0.122		0.121
	4+	-0.155		0.120
기간 TFR		(n/a)		(n/a)
코호트 TFR		0.066		0.176
고령화율		(n/a)		(n/a)
코호트사망률		16.950		12.742
기대수명		-0.586		0.795
연령	70-74	-3.882		4.082
	75-79	-8.157		8.387
	80+	-13.074		13.024
성별	여성	-0.094		0.079
결혼상태	기타	-0.275	***	0.078
교육	중등	0.078		0.111
	고등+	0.378	***	0.111
취업	예	-0.171	*	0.074
경제상태	보통	-0.036		0.087
	나쁘다	-0.017		0.090
건강상태	보통	-0.078		0.091
	나쁘다	-0.046		0.079
거주지	읍면	-0.317	***	0.072
절편	1	-9.521		12.235
	2	-8.282		12.234
	3	-8.106		12.234

P-value: † <0.10, * <0.05, ** <0.01, *** <0.001

<표 7-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녀수를 아들 수와 딸 수로 나누어 유산상속방식에 대한 모형을 추정했을 경우에는 앞선 ‘자녀 수 모형’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선 ‘자녀 수 모형’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균분상속을 지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었는데(특히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일 경우에 비해), 자녀의 수를 아들 수와 딸 수로 각각 나누어 보면, 아들 수가 증가할 때는 오히려 장남중심의 상속행태를 높이며, 딸의 경우에는 그 수의 증감이 유산상속방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절대적인 수가 많을 때는 장자에게만 유산상속을 행할 확률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자녀의 구성까지 고려하고 보면 자녀 수의 증가는 오히려 장자중심의 상속행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아들딸 수 모형’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다른 변수들은 앞선 ‘자녀 수 모형’과 효과의 크기, 방향 및 유의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7-4>에 제시된 ‘동거자녀 모형’의 누적 로짓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동거 아들이 1명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동거 아들이 없는 경우보다 장자 중심의 상속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기술통계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고, 만약 동거한다면 1명의 이들과 동거할 확률이 높다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그 1인의 동거 아들은 장자일 확률이 높고, 따라서 1인의 아들과 동거중인 노인들은 동거아들이 없는 경우보다 장자중심의 유산상속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거 딸 수 변수들의 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그 1인의 동거자녀가 딸일 경우에는 노인들이 균분상속을 지지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동거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동거중인 그 자녀에게 유산상속을 행할 확률이 높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반면 비동거 자녀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유산상속방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7-4>의 ‘동거자녀 모형’에서도 다른 통제변수들은 앞선 모형에서와 유사한 효과 및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7-4〉 동거자녀 모형 추정 결과: 유산상속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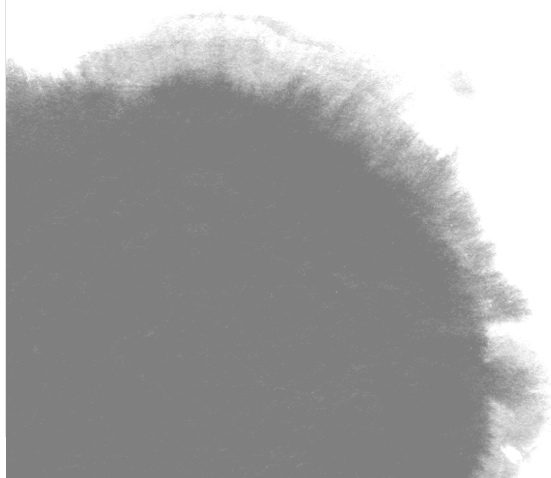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변수명	변수값	일반누적로짓모형		
		계수		표준오차
연도	2008	3.172	*	1.444
	2011	3.814	†	2.100
	2012	3.612	†	2.100
동거 아들 수	1	-0.308	***	0.079
	2+	0.172		0.226
동거 딸 수	1	0.480	**	0.156
	2+	-0.494	†	0.273
비동거 아들 수	1	-0.059		0.122
	2+	0.196		0.121
비동거 딸 수	1	0.118		0.116
	2+	-0.058		0.109
기간 TFR		(n/a)		(n/a)
코호트 TFR		0.012		0.175
고령화율		(n/a)		(n/a)
코호트사망률		18.146		12.695
기대수명		-0.697		0.799
연령	70-74	-4.360		4.091
	75-79	-9.150		8.398
	80+	-14.601		13.038
성별	여성	-0.089		0.079
결혼상태	기타	-0.226	**	0.079
교육	중등	0.084		0.109
	고등+	0.324	**	0.110
취업	예	-0.214	**	0.074
경제상태	보통	-0.042		0.087
	나쁘다	-0.018		0.089
건강상태	보통	-0.098		0.090
	나쁘다	-0.052		0.078
거주지	읍면	-0.341	***	0.073
절편	1	-9.989		12.307
	2	-8.764		12.306
	3	-8.591		12.306

P-value: † <0.10, * <.05, ** <.01, *** <.001



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 절 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5개년에 걸친 노인실태조사와 2012년 유산상속 전화조사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노인의 유산상속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산상속동기와 관련하여 유산상속시기와 선호하는 유산상속형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이 유산상속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분석을 유도할 수 있는 커다란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개별 결과변수에 따라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였고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장점을 유념하면서 본 보고서의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산상속여부에 관한 분석에서 자녀가 많은 경우, 특히 아들이 하나 이상인 경우 이미 유산상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견이 있었다. 하지만 딸의 수는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하였다. 특히 동거아들이 하나 있는 경우 유산상속을 미리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향후 유산상속시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자녀가 많아지면 죽기 전에 상속하겠다는 응답을 할 확률이 죽은 다음에 상속하겠다고 응답할 확률보다 떨어졌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녀수가 많고, 아들 수가 많고, 동거아들 수가 많을수록 유산상속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확률이 떨어졌다. 이 이외의 저출산 고령화 변수는 모형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자녀수가 2인인 경우 장자에게만 유산상속을 할 확률이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낮아지지만, 자녀수가 3명 혹은 4명 이상인 노인들은 자녀가 1명인 노인들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수와 구성이외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보고서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하고 향후 연구의 진척을 위해서 또 한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질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 각 연도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인과적 추론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앞서 아들과 동거하는 경우 이미 유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배제할 수 없다. 아들과 동거하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유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아들과 동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설명은 후자

의 설명과 매우 다른 것이며 각 설명방식에 따라 정책적 함의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횡단면적 자료로는 이 두 가지 배타적인 설명 중에 어떠한 설명이 옳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를 해석할 때 독자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 중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무작위 실험의 방법으로 대변되는 현대 인과분석의 지배적인 형태는 하나의 명제를 검증해보는 것이다(Morgan & Winship, 2007; Rosenbaum, 2002). 즉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와 결과변수(response variable)를 설정한 후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무작위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관찰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는 이러한 무작위실험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처치변수와 관련된 모든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는 것에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혼동변수가 자녀 수 모형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저출산 고령화 변수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처치변수의 하나인 코호트사망확률은 과거 10년 동안의 코호트사망확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호트사망확률과 유산상속 양쪽에 영향을 미칠만한 혼동변수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사회적 수준에서 경기침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코호트사망확률과 유산상속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코호트사망확률에 대한 결과를 인과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를 넣은 모형을 추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정책적 함의

자녀수 및 구성과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든 저출산 고령화 변수들이 자녀수 및 구성과 관련한 변수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개인주의의 오류가능성을 무릅쓰고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한다면 다른 저출산 고령화관련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녀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재산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자녀수가 많은 경우 이미 유산상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견은 자녀수가 적은 경우 유산상속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지지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녀수가 적어지는 저출산의 시대에 유산상속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산상속시기가 미루어지면 노인이 보유하는 재산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노후대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산상속이 미루어지면 유산상속 문제를 매개로 하여 자녀와의 갈등가능성이 커지고 재산권을 가진 노인이 죽은 다음 배우자와 자녀사이, 그리고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이삼식 외, 2011).

7장에서 동거 딸이 한 명일 경우 동거 딸이 없을 경우에 비해 균등유산상속을 지향할 확률이 높았으나 동거 딸이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동거 딸이 없을 경우에 비해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관찰이 제시하는 바는 만약 장자중심의 유산상속이 가져오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동거 딸이 한 명이 있는 가족 형태를 장려하여 이러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거 딸이 한 명인 가족을 장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동거 딸이 있는 경우 세금관련 혜택을 주거나 다른 가족구성에 세금관련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수가 두 명인 경우 여타의 경우에 비해 장자중심의 유산상속형태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형태를 띠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현상은 가족 내 평등을 지향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가족 내 평등이 사회적 차원의 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들이 또한 소수의 자녀에게 물려주면 사회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장의 전화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여전히 매우 낮다. 자신의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증대하여 소수의 자녀를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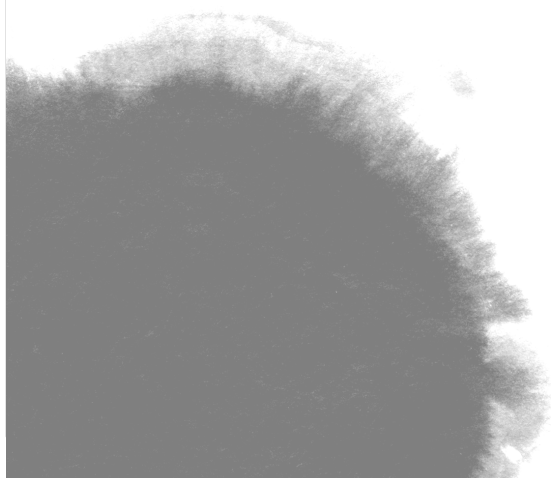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 권태환(1997). 출산력 변천의 과정과 의미. 서울: 일신사.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 **한국노년학**, 25(4), pp.1-11.
- 김혜경(2008). 노인의 유산상속과 사회적 지원. **한국노년학**, 28, pp. 309-323.
- 문영소, 김양희(1997).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pp.157-171.
- 문형표, 김희삼, 안중범, 김을식, 이상협, 전영준, Mason, A.(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05-03, 세무과제보고서 (2).
- 석재은(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pp.163-191.
- 신화용, 조병은, Walker A. J. (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125-136.
- 이삼식, 정경희 (2010). **저출산 원인과 피급효과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2010-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장경섭, 김선엽, 이병훈, 송다영, 박종서, 김은정, 최효진(2011).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갈등**.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 이윤경, 정경희, 염지혜, 오영희, 유혜영, 이은진(2010). **한국 노인의 삶의**

- 변화 분석 및 전망.** 연구보고서 201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2). 각종 통계자료.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에
서 2012년 10월 인출.
- Agresti, A. (2002). *Categorical Data Analysis*,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209-231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National Bureau Conference Series No.1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Little, R. J. A., Rubin, D. B. (2002). *Statistical Analysis with Missing Data*,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Lohr, S. L.(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Pacific Grove, CA: Duxbury Press.
- Long, J. S.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ong, J. S., & Freese, J. (2006).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2nd ed.*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Martin, T. C. (1995). Women's education and fertility: Results from 26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Studies in Family Planning*, 26, pp.187-202.
- McCullagh, P. (1980). Regression Models for Ordinal Data (with Discussion).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42, pp.109-142.
- McCullagh, P., Nelder, J. A. (1989). *Generalized Linear Models*, 2nd

- ed. New York, NY: Chapman & Hall.
- Pearl, J. (2000). *Causality: Models, Reasoning, and Infer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wers, D., Xie, Y. (2000). *Statistical Methods for Categorical Data Analysi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Raudenbush, S. W.,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osenbaum, P. R. (2002). *Observational Studies*, 2nd ed. New York: Springer-Verlag.
- Shuman, H., Johnson, M. P.(1976).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pp.161-297.
- StataCorp.(2009). *Stata: Release 11. Statistical Software*.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 100 —





유산상속 행위 및 의도

☞ 다음은 귀하의 유산상속 행위 및 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까?

1.

- ① 전부 물려주었다 ② 일부만 물려주었다 ③ 아직 안 물려주었다
④ 물려줄 재산이 없다 ⑤ 자녀가 없다

2. 자녀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언제 물려 줄 예정입니까?

2.

- ①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언) ②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③ 생각해 본적 없다

3.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 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②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③ 장남에게만 ④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⑤ 효도한 자녀에게 ⑥ 사회에 환원

※ 질문지를 두 개 만들고 하나는 이 순서대로 질문하고 다른 질문지는 다음의 순서대로 질문한다. 이하 이와 유사한 질문은 이 방식을 따른다.

- ① 사회에 환원 ② 효도한 자녀에게
③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④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⑤ 장남에게만 ⑥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4.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자녀와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까?

4.

- ① 예, 다투어 본적이 있습니다 ② 아니요, 다투어 본적이 없습니다

반사실적 유산상속 행위

☞ 다음은 현실과 다른 상황에서 유산상속에 관한 귀하의 선호도를 묻습니다.

5-1. 귀하에게 남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언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5-1.

①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언) ②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5-2. 이 경우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2.

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②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③ 장남에게만 ④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⑤ 효도한 자녀에게 ⑥ 사회에 환원

6-1. 귀하에게 여자 자녀가 한 분 더 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언제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6-1.

① 본인이 죽은 다음에 (유언) ② 본인이 죽기 전 적당한 시기에

6-2. 이 경우 재산상속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2.

①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②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③ 장남에게만 ④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골고루
⑤ 효도한 자녀에게 ⑥ 사회에 환원

11. 귀하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동거자녀 11-1. 남자 명 11-2. 여자 명

11-1.

11-2.

비동거자녀 11-3. 남자 명 11-4. 여자 명

11-3.

11-4.

1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대학교/대학원 포함)

12.

13. 귀하는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일을 하고 있다 ⇨ 13-1로 가세요

② 일을 하지 않고 있다 ⇨ 16으로 가세요

13.

13-1.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고용주 포함) ② 정규직

③ 비정규직(계약직, 파견, 용역, 시간제 등)

④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등 - 가족 일을 돕되 임금이 없는)

⑤ 근로하지 않음

⑥ 기타()

13-1.

14. 지난 1년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입니다)

① 199만원 이하 ② 200~299만원 ③ 300~399만원

④ 400~499만원 ⑤ 500~599만원 ⑥ 600만원 이상

14.

15. 귀하의 명의로 된 현재 재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후 부채를 제외해 주십시오. 부부 공동 소유의 경우 반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15.
- 만원
16. 귀하는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경제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6.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⑤ 아주 나쁘다
17. 귀하는 지금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17.
- ① 자가 (가족 소유 포함)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18. 귀하는 같은 연령층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8.
-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나쁘다 ⑤ 아주 나쁘다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사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 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이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어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사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어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성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이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4 • 간행물회원제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사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비우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개괄,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요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외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 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합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구축및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잡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을 중심으로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체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정립 방향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합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장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